

2022학년도 2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최우수상

탐나는 교수님의 비기

문헌정보학과 20학번 강재희

우수상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하는 환율공부

경제금융학부 18학번 김형민

도전과 성장 : 함께 만드는 수업!

영어교육과 19학번 곽효석

장려상

인간 수업

국어교육과 17학번 전한경

결혼이 대체 뭔데?

생명공학전공 21학번 윤한서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교육학과 21학번 정서희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 목표 추구 학습전략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안 소 현

우수상

한 달 안에 GTQ와 토익 모두 부수기!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 주 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 규칙

국어교육과 19학번 방 효 주

장려상

2022 상생플러스 평가회에서 생긴 일

식품영양학전공 17학번 김 현 진

K-MOOC와 작지만 큰 소모임 활동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 지 우

2022학년도 2학기

상명 **익스퍼트** 공모전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탐나는 교수님의 비기

문헌정보학과 20학번 **강재희**

강의 소개

이현우 교수님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우수강의로 소개합니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는 교직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교수설계 이론과 모델을 심리학적 기반 이론 및 교수-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고찰하고 논의할 수 있다.”, “2. 교수설계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여 교수-학습환경을 설계 및 적용할 수 있다.”, “3. 일상의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교사로서 효과적인 교수-학습환경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론, 교수설계 이론과 교육방법을 탐구하는 강의입니다. 해당 강의의 중간고사는 본인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는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팀 프로젝트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설계해보는 기말 과제와 기말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물에 필요한 사전 지식은 모두 수업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수님만의 특별한 수업 방법이 하나하나 설계되어 수업 전반에 활용됩니다.

추천 이유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방법 및 수업자료)

이현우 교수님은 세 가지의 비기를 통해 특별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해당 강의를 수강하며 배우는 모든 내용을 이 수업 시간에 적용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첫째, 강의식 교수법보다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협동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셨습니다. 수동적 학습이 아닌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교수자가 설명하고 학습자가 앉아서 수업을 듣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2시간의 수업이라면 첫 교시는 교수자 강의, 두 번째 교시는 학습자들끼리 토론하고, 수업 설계를 함께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고 상대 팀에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으로 수업 전반을 이끌어가셨습니다.

둘째, 교수님이 과제와 시험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하셨다는 점과 이에 기반한 피드백이 명확하게 왔다는 점입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 활용해야 하는 지식을 수업에서 미리 적용해보고 발표한 후 동료 학습자들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이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과제를 할 때는 더 나은 결과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교수-학습지도안

분리수거 교수-학습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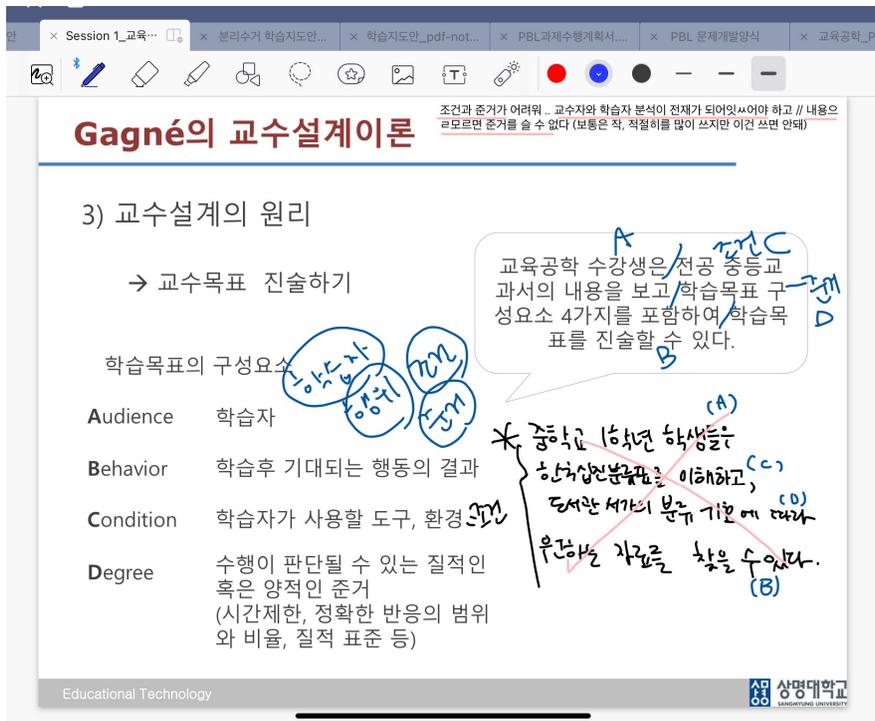
학습대상	초2	차시	
수업내용 개관	"분리수거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학습목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익힌다."		
학습자료 수업방법	교사가 무엇을 시키든 하지 않도록 함.		
교수-학습 과정			
학습 과정	수업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교사	학생	
주의	주의 획득	교사: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설명 학생: 질문	15'
기대	학생의 참여 유도	학생: 질문	
활동의 개념	쓰레기 분류	학생: 질문	
단순 기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학생: 질문	
복합 기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학생: 질문	
내용 변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학생: 질문	
기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학생: 질문	
가장 효과적인 기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학생: 질문	
실용 기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학생: 질문	

실제로 위 사진은 중간고사 과제로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전까지 팀별로 '분리수거를 주제로 학습자들에게 수업해야 한다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매주 한 단 계씩 나아가며 최종적으로 분리수거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보고 교수님과 다른 학습자들의 최종 피드백을 받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토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피드백으로 거듭 수정을 거치는 과정은 과제인 나만의 교수-학습지도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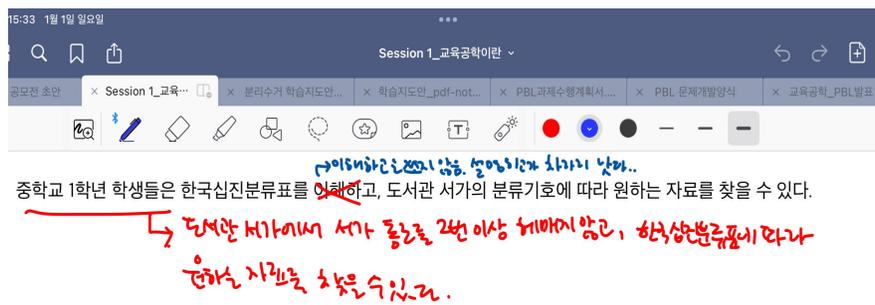
셋째, 각 과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해당 과의 특성을 살려 수업과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직 강의인 만큼 다양한 과가 섞여 있었는데 비교과 과목인 문헌정보학과와 국어교육과, 일어교육과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비 사범계 계열인 문헌정보학과가 섞여 있을 때 다른 교직 강의는 사범계 과들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되었지만, 본 강의에서는 각 과의 특성을 살려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

니다.

아래 사진은 교수-학습지도안을 만들기 이전에, 가네의 교수설계 이론을 학습하며 학습목표의 구성요소에 맞추어 제가 설계할 교수-학습지도안의 학습목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에 사용한 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때 가네의 교수설계이론을 5주차에 학습했는데 학과 답사를 가는 바람에 수업에 공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주차 수업에 참석했을 때, 제가 직접 진술한 학습 목표에 대해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인 저의 학과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이때, 학습 목표의 구성요소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어느 곳인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니 학습목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 올리는 식으로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하고 학습한 지식을 활용해 예시 문제에 적용해 본 후, 실제로 중간고사 과제로 주어진 양식에 교수-학습지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실제로 제출한 과제 사진인데, 제출 이후 교수님의 피드백이 추가된 사진입니다.

이 개체의 9가지 항목의 순서가 맞춰 수업에 설계되었습니다.
 활동순서에 대한 설명이 활동 순서입니다.
 교수-학습 지도안 27/30

이름	강지민	학번	2020110069	학과	문헌정보학과
교과	과거 정보생활 - 2. 우리 학교 도서관 탐방	차시	1/1(90분)		
수업내용	본 수업은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과 도서관의 이용 방법을 알고, 학교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한다.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알고,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을 거쳐 실제 자료에 필요한 정보를 사서 교사의 도움을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년 친구들과의 모둠활동으로 친목하는 실습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쉽게 해소할 수 있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도서관의 성격과 사서와 사서 보조를 어떤 이상 해치지 않고 한국실경문화 표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O P				
학습자료	PPT자료, 유인물(활동지), 도서관 소개 카드, 책				
수업방법	강의, 모둠활동, 질의				

학습 과정	수업 사례	교사	학생	시간	이론적 근거
주의	주의	지각시간에 주의력을 획득한다. - 도서관으로 온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도서관을 보여주며 이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 본 사람이 있다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지도 기억하는지 물어본다. (있다면 생략) -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해본 것 경험은 없었는지 질문한다.	- 선생님이 들고 온 책을 보고 지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본인의 경험을 떠올린 후, 손을 들어 대답한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 관심이 생긴다.	5'	과거 수업을 위한 준비가 일어나야 하는 데, 이러한 주의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기대	목표 제시	배워 할 내용과 학습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 - 내용을 읽고 도서관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소개한다.	- 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학습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실제로 내가 일어나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5'	학습 의욕을 유발시켜 주고, 학습에 스스로 기대는 공부 습관을 위한 목표설정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게 하는 과정이다.
최상	선수 학습 소회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단기기억에서 꺼내본다. - 도서관에 가서 책을 어떻게 찾아 있는지 물어본다. - 대답을 듣고 그에 보인던 순서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 순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그 순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 경험을 생각해서, 질문에 대답한다. -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순서에 대한 시선 지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답을 낸다.	5'	선수 지식을 회상하는 단계로, 새로운 학습을 촉진하게 되는 과정이다.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과정	수업 사례	교사	학생	시간	이론적 근거
일반화	과제 및 진이	받은지 확인한다. - 모둠별로 활동지를 제시하고, 직접 자료를 찾아오는 실습을 진행한다. - 한 모둠 당 다른 모둠에서 한 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해당 모둠의 활동에서 사서의 도움이 제언된 경우 이를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제언된 학습 안에서 자료를 찾아오는 모둠에 상용(간지)을 준다. - 마지막으로 오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분의 시간을 준다. - 앞으로 이 내용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친구나 부모님과 도서관에 갔을 때 자료를 빠르게 찾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로 정리한다. - 더불어 도서관을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활동 시 긍정하고 부정하게 임한다. - 사기를 고히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모둠원들과 충분히 상의한다. - 간식을 받고, 소감을 친구들과 나눈다. -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도서관 이용에 관한 불안감이 해소된다. - 자리를 정리한다.	5'	수행평가가 끝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수-학습지도안

교수-학습지도안 평가요소

1. 학습목표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2. 가내의 9가지 수업사례가 이론적 근거에 따라 반영되었는가?
3. 교사와 학생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4. 각 단원별 이론적 근거가 논리적인가?
5.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6. 수업시간은 학습량을 고려하여 배분되었는가?
7. 학습지도안은 설계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8. 교사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설계되었는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수-학습지도안의 평가요소가 과제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요소에 맞추어 학습 목표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가내의 9가지 수업사례가 이론적 근거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학습지도안이 설계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일관성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방식은 기말고사 때까지 이어집니다. 기말 팀프로젝트는 '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였습니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팀은 같은 과 학습자들과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PBL 수업의 설계를 위해 9주차 수업부터 필요한 이론을 배우고 학습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11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각 팀 별로 과제수행계획서를 세우고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토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PBL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PBL 수업과 관련한 영상자료를 보여주시며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과제수행계획서

사실(Facts)	생각(Ideas)	학습과제(Learning Issues)	학습계획(Action Plans)
문제에 제시된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과 이전의 학습내용, 경험들 중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봐야 할 것, 찾아봐야 할 것들을 정리	'생각'과 '사실'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학습해야 하는 것을 선별, 정리	도출된 학습과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 또는 조사할 것인지 계획
- PBL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협동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수업내용에서 벗어난다면 안된다. - 평가방법 : 자기평가, 동료평가, 팀평가	3-4차시 수업 구성 예정 1안 -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 과목 연계 수업 - 과목 : 정치와 법 (사회) - 정보자원활용 (+ 정보자원 평가) 2안 - 세계지리 가이드북 만들기 (리플릿 만들기) ① 내가 여행가자면... ② 내가 방문하자면... (이웃신앙) ③ 내가 여행기록을 써보면... ④ 다국가... ⑤ 내가 여행가자면... ⑥ 내가 방문하자면... (이웃신앙) ⑦ 내가 여행기록을 써보면... ⑧ 다국가...	학습자에게 .. '동기를 줘야 해 - 학습자가 궁금해서 공부할 수 있게 ... 1안 - 정치와 법 안에 연계할 수 있는 단원 찾아보기 (모둠별 주제 설정 가능한 단원) - 활용할 정보자원 범위 설정 및 조사 (DB 사이트 등) - 평가방법 - 장소, 기기 (도서관) 2안 - 논문 활용 - 다국PD.	공급해서 공부할 수 있게 ... 포스트-피케이션 "포스트-피케이션" 비전 한정. 기대사항...

이 과제수행계획서는 스캐폴딩(비계)이 되어 팀별로 문제기반학습 설계를 위한 토의를 할 때 학습자들이 예시가 없어도 발달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시 수업에 걸쳐 교수설계안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		-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다양한 정본원을 보고 정본평가의 5요소(최신성, 정확성, 관련성, 권위, 목적성)를 활용	
문제명 여행 프로그램 기획하기	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을	넷플릭스 협업 제안서
교과 및 단원 세계지리 - 2.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3. 세계의 인문환경	학습목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탐색하고, 의미있고 바람직한 여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익혀 직접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문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개념, 절차, 원리 등) 여행 산업의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행 산업의 변화 방향 및 여행 관련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고 직,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며,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한 여행 주제를 정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실천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다인공: 김상명만 . 김유지...	시나리오 구현방법 (위에서 만든 문제 시나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예: 동영상으로 영화를 만들어 제공한다.)
문제 상황: 예능국 국장 : 이번엔 넷플릭스에서 예능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 주제는 여행인데. 김상명 PD :	필요한 정보자원 예능 '꽃보다 청춘, 짠내투어' / 출연진 나시대 / 기획안 양식 / 가이드북, 단행본, 여행 관련 홈페이지 .. -> 언급정도로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사원으로 학습자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과 관련은 없으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등)	문제해결 수행방법 교사가 대륙을 미리 선정해주고 서로 하고 싶은 선택 (팀구성 및 절차 등) 한 팀당 4명씩 .. 6 팀 정도로 구성 // 대륙별 ..	문제해결 소요시간 1차시: 여행프로그램 기획 및 나라 선정 - 1시간 2차시: 조사 50분씩 3차시: 조사 + 기획안 만들기 4차시: 발표
최종과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여행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등) - 분야별 요소 (자연환경(기후, 자연환경, 인문환경(음식, 종교, 축제)) 1개 이상씩 - 문화유산 소개 2개 - 자연환경 관광지 소개 3개 - 정보평가 5요소 : 정보자원 ..		

아래 사진은 기말 팀프로젝트로 주어졌던 '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에 최종적으로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

문제명	예능 PD가 되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안을 작성한다.	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과 및 단원	<세계지리> 2.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간 공간 <도서관과 정보생활> 2. 정보 탐색과 접근		
학습목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싶은 것)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여행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망가 5요소에 근거하여 탐색하고, 수집할 수 있다.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선정한 나라의 기후 환경에 따라 기후를 알맞게 연결하고, 기후의 특징을 이해하여 자연환경에 적응한 인간 생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개념, 절차, 원리 등)	- 정보망가 5요소(최신성, 정확성, 관련성, 권위, 목적성) - 기후 환경(온대기후, 열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 강수량과 기온을 바탕으로 한 기후 그래프 분석 - 세계의 주요 대지형(산맥, 화산 등) - 종교 분포와 종교 경관(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 기후와 자연환경,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계 축제		
문제	주인공은 김상영PD와 최승우 작가 김상영PD와 최승우 작가는 새로운 예능을 기획해야 합니다. PD와 작가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회의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예능국 국장님과 했던 대화를 떠올려 봅시다. 예능국 국장: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예능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 김상영PD: 여행 예능이요? 낯보다 청춘이어도 되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나 판내투어, 음식당 등등 뭐 많잖아~ 김상영PD: 너무 다른 프로듀서랑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능국 국장: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두는 게 핵심이겠 같은데, 새 프로그램 전에 이전 프로그램들은 어췌하는 분석 조금 해봐 봐. 우선 여행 예능이니까 그 나라 소개가 필요하겠지? 국가의 기후나, 지역적 특성,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관광지, 문화유산, 인문환경 관광지 등		

나는 건 꼭 들어가야 할 거 같아 김상영PD: 인문환경 관광지라면 종교나 축제 알겠어시죠? 예능국 국장: 그렇지~ 음식도 포함하고! 아 자연환경 쪽에선 기후도 좀 통계적으로 분석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좋겠네. 로케이션 촬영 가면 계절이나 날씨가 가장 중요한 테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국이라 넷플릭스 협업으로 꾸러지는 프로그램이니까 정보 신뢰가 갈만한 것들로만 구성해야 하는 거 알지? 블로그나 위키 같은 곳에서 꼭감가지지 말고~ 단행본도 찾아보고 논문도 좀 보고 원 말인지 알지? 아 그제 정보들을 정보망가 5요소에 따라서 조사하면 내가 정보조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자료조사 열심히 하도록 해! - 다시 김상영PD와 최승우 작가의 회의. 김상영PD: 작가님, 우선 선행 프로그램 분석은 우리가 같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승우 작가: 네 그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회의 때까지 각자 조사를 한 후 함께 분석해 봐요. 김상영PD: 그럼 이제 크게 자연환경(기후, 지형)과 인문환경(축제, 종교, 음식)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작가님이 인문환경 쪽을 맡아서 조사해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연환경 쪽을 조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 작가: 네. 아 국장님이 신뢰가 갈만한 정보들로 구성하려고 하셨으니 정보망가 5요소에 맞추어서 하면 좋을 텐데... 정보망가 5요소가 무엇인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김상영PD: 네, 작가님. 아무래도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것도 각자 조사한 후 다음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프로그램 첫 회의 시간인 선행 프로그램 분석과 정보망가 5요소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디brief 해 봅시다. 잘 부탁드려요 작가님. 최승우 작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봐요!
--

최종과제	학습자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 한 대륙을 선택한다. 그 대륙 안에서 다시 한 국가를 선정하여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획안을 작성한다. 기획안의 내용에는 자연환경 요소와 관련된 여행지(특색한 지형, 기후로 발생한) 2개 이상, 인문환경과 관련된 문화 여행지(종교, 건축물, 예술, 음식) 2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성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조별 발표를 진행한다.
시나리오 구현방법	방송국의 예능국에서 유명한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협업 제안을 받아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넷플릭스 측에서 방송국으로 보낸 협업 제안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PD로서 문제 상황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div>
필요한 정보자료	- 다양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남자, 판내투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기존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분석 방법

문제해결 수행방법	(재력 분석, 출연진 분석, 주인공 분석, 구성과 스토리 분석) - 기획안 작성법 - 기상청의 날씨 날씨 통계 세계날씨 - 기상청 날씨누리 (weather.go.kr) - 여러 종류의 가이드북 - 여러 국가 관련 연표본 - 여행 관련 홈페이지(리조트호텔, 에어비앤비, 여행비, 트립닷컴 등)
문제해결 소요시간	1차시(50분) - 문제 상황 제시, 팀 구성, 프로그램 배경 국가 선정(마인드맵 활용), 기존의 여행 프로그램 분석 2차시(50분) -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기후, 자연환경, 종교, 문화, 예술 등) - 가이드북, 단행본, 논문 등을 활용하도록 자료와 기기를 제공 3차시(50분) - 조사한 정보를 조직하여 여행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4차시(50분) - 팀별 발표 진행(발표 시간: 약 10분)
평가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과정 평가, 산출한 결과물 평가, 발표 평가로 나누어 진행한다. 과정 평가 중 '3. 자기 및 동료 평가'는 학생 본인의 팀원 평가하고, 결과를 평가인 '기획안 평가'는 학생 본인의 팀과 상대의 팀도 함께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발표평가의 경우, 상대의 팀원 평가한다. <과정 평가> 1. 수업 시간에 작성한 활동지 (프로그램 분석 활동지, 정보망가 5요소 활동지 등) 2. 교사의 관찰 일지 3. 자기 및 동료 평가(1-5 점수표) ①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③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④ 유용한 정보를 찾아 제공하였다.

<p>⑤ 다른 구성원을 칭찬하고 격려하였다.</p> <p><결과물 평가></p> <p>1. 기획안 평가(학생용/1-5 점수표)</p> <p>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접근하였다.</p> <p>② 기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다.</p> <p>③ 신뢰할 만한 자료를 인용하였다.</p> <p>④ 충분한 설명과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p> <p>⑤ 기획안의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다.</p> <p>⑥ 기획안의 완성도가 높다.</p> <p>교사의 경우, 위 평가표에 분량 및 조건 문항을 포함한다.</p> <p>2. 분량 및 조거(교사용/ 상중하 점수표)</p> <p>① 독특한 지형, 기후로 발생한 자연환경 요소와 관련된 여행지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가? (2개 이상:상, 1개: 중, 1개 미만: 하)</p> <p>② 종교, 건축물, 예술, 음식 등 인문환경과 관련된 문화 여행지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가? (2개 이상:상, 1개: 중, 1개 미만: 하)</p> <p>③ 재출 기한을 잘 지켰는가?(출 지킴: 상, 1일 초과: 중, 2일 이상: 하)</p> <p>④ 재출 분량을 잘 지켰는가?</p> <p><발표평가></p> <p>:교사와 학생 모두 평가를 진행한다.(1-5점수표)</p> <p>① 적절한 발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자세, 표정, 말의 톤 등)</p> <p>② 제한된 발표 시간을 잘 준수하였는가?</p> <p>③ 발표 자료의 전개가 논리적인가?</p> <p>④ 발표를 하는 팀원 간 역할 분담이 고루 되었는가?</p>
--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번 과제에도 문제기반학습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PBL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학습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단항목이 주어져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핵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우리가 설계한 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안을 교수님이 제시하신 평가표에 근거하여 빠진 항목을 확인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어 더 좋은 과제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PBL 문제 타당성 확인

No.	진단항목	예	아니오
1.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는가?		
2.	문제는 학습목표와 관련된 개념 및 원리를 다루고 있는가?		
3.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인가?		
4.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를 찾고,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한가?		
5.	여러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는가?		
6.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 방법이 다양한가?		
7.	논쟁이나 토론의 여지가 있는가?		
8.	실제로 가능한 사례인가?		
9.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자료가 현실적인가?		
8.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실천가의 사과과정을 반영하는가?		
9.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가?		
10.	학습자가 경험했거나 경험할만한 사례인가?		
11.	현실과 같이 복잡한 문제인가?		
12.	협동이 필요한 문제인가?		

문제기반학습 평가표

팀명: _____

No.	평가항목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문제상황이 흥미롭고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	2 3 4 5
2.	문제는 학습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유의미한 문제	1	2 3 4 5
3.	문제는 비구조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다.	1	2 3 4 5
4.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해야하는 내용들이 학습될 수 있다.	1	2 3 4 5
5.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학습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1	2 3 4 5
6.	매체의 다양한 기능이 시나리오 구현에 활용되었고,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1	2 3 4 5
7.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였다.	1	2 3 4 5
8.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1	2 3 4 5
9.	최종과제물이 다양한 결과물이 예상되고 평가가 가능하다.	1	2 3 4 5
8.	문제상황에 독특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다.	1	2 3 4 5
9.	문제기반학습을 구현했다.	No	Yes
Feedback:			

팀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14주차에는 팀별로 설계한 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수업을 듣는 모든 학습자가 각 팀을 평가할 수 있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수님과 동료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지만, e-campus에 등록된 과제 제출 항목에 채점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과제 채점 결과

성적	20.00 / 20.00
채점 일시	2022-12-08 16:32
채점자	이현우

—

- 문제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도출하였음.
- 학습목표가 문제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기술하고 있음.
- 문제 상황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학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넷플릭스 공문을 활용한 점이 학습자에게 실제성을 높여주고 있음.
- 과정평가와 발표평가는 잘 설계되었으나, 결과를 평가는 학습의 대상이 아닌 영역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문제기반학습을 잘 구현하였고,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됨.

피드백 <동료평가>

- 세계지리와 도서관 내용이 잘 융합된 것 같습니다.
- 학생들이 어디서 정보를 찾아봐야 할지 제시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좋았습니다.
- 물론 지형을 살펴볼 때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학습자들이 직접 경험해 본 지형을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지리가 아니라 한국 지리를 융합 수업의 과목으로 선택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평가의 내용이 상세하다.
- 학습자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슷한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미래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문제기반학습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면 될지 상상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와 평가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마지막 피드백에서 저희의 '평가' 항목에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놓친 '일관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일관성이라는 항목이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시험은 논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시험은 개인 컴퓨터를 강의실에 가져와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단순히 답안지에 문제와 답안 칸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칸에 평가 항목이 있어서 시험 시간 안에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답안지를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상명대학교 시험 응지				시험과목	
(기말)		(주요: 성명 및 학번은 모른 채이지에 출제)				이항수 (2분)	
과목명	담당교수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성명	
교육방법 및 공학	이항수	문헌정보학과	3	202010080	김지민	38/40	

<문제>
 여러분은 기말프로젝트에서 학교현장실습 중인 예비교사로서 학습자중심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 현직교사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의 팀에서 설계한 수업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① 설계한 수업이 문제기반학습으로서 타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기술하십시오.
 ②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수업의 효과성을 설명하십시오.
 ※서론, 본론, 결론을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논술하십시오.

<답안> **홍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기말프로젝트에서 설계한 수업은 문제기반학습으로서 타당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에서는 기말프로젝트에서 세계지리 교과와 사서교사의 연계수업으로 가정하고,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문제기반학습을 설계했다. 이때, 문제기반학습의 원리인 "문제가 제시되면, 사실 확인, 가설 수립, 학습과제도출 등의 문제해결 계획을 학습자가 세우게 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학습을 하게 된다. 이후 적용과정을 통해 협동학습 및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결과 정리 및 발표 과정을 거친 후 평가와 성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논점을 이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자 했다.

문제기반학습이란 비구조화된 문제를 주원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학습을 이끄는 것이다. 문제기반학습에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지식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비구조화되고 실제적인 문제여야 한다. 즉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고,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제는 학습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유의미한 문제이면서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세계지리 과목과 문헌정보학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고민의 끝에 도출한 문제 상황은 전공 특성을 살려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고, 전체적인 여행 프로그램 기획의 틀은 세계지리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벗어나지 않게 했다. 더불어,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정보,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방송국 국장-방송국 PD, 방송국 PD-방송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자 했다. 그 시나리오의 대화 흐름을 따라가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학습자들이 보다 생생하게 맡은 바에 몰입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을 느끼게 하기 위해 "넷플릭스 힐링 공간"을 제시했다. 어떠한 단편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를 주었다.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영역에서 정보도 제공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던(가상칭)의 세계 기록, 여행사 홈페이지, 단행본 등),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의 예시들을 들어 문제 상황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학생들이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를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을 약 4주로 가정하여 각 주마다 교수자가 어떻게 상황을 이끌면 되는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주마다 학습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대륙의 팀으로 들어가 자기주도적인 능동성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중심역할이 될 것이며, 여러 학습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의 구성을 촉진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에서 교수자 평가와, 학습자 평가로 구분하여 과제를 평가, 팀원 평가, 발표평가의 항목을 정했다. 다만, 이때 학습목표와 일관성이 떨어짐을 의도적으로 확인했다. 발표자료의 평가는 평가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프로젝트 내에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해당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 팀에서 설계한 문제기반학습 수업은 문제기반학습으로서 타당한 수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기반학습에서의 교수학습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안을 발견해 나가는 **귀납적 유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리 교수자에 의해 주어졌던 문제나 해결안을 학습자가 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인식부터 해결의 길 과정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설계한 학습은 **구성주의적 과정의 보았을 때,** 대단한 효과성을 가지리라 판단된다.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주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때 의미란 경험의 개인적 해석을 말하는데, 이는 실제적이고 관련된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명확화하고 한다. 다시 말해, 의미를 만들어 내리던 맥락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맥락이 제공되어야지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학습자 중심교육을 한다면 이야기는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습자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구성주의자의 대표적 학자인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면화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학습은 없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지식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이때, 근접발달 영역을 확장시켜주어야 하는데, 직접교수법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 도움을 스케폴딩(비계, 발판)이라고 한다. 즉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스케폴딩이다. 다만, 스케폴딩에서 중요한 것은 도움이 없었을 때 (fade-out), 여전히 학습자가 발달된 수준을 유지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스케폴딩인지, 직접적 도움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라 학습은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자가 의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일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적극적 과정을 학습자들은 경험했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풍부한 학습환경, 협력적 학습환경, 발표와 평가를 통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등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탐색의 결과로서의 학습 과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한 지식은 그 지식이 사용되는 조건이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영역도 교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이론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팀이 설계한 수업을 보면, 학습자들이 서정적인 여행 프로그램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최망적으로 자주 꼽히는 방송 pd와 방송작가가 직접 방송국 pd, 방송작가가 되어야 가능한 상황이지만 해당 직업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들어주어 매력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설계한 수업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고, 학습자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본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수업을 적용한다면 기대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Rubric]

영역	상	중	하	미충족
구성 [10점]	• 논술의 구성요소(서론, 본론, 결론)를 갖추고 논리적 체계성과 주제와의 연결성이 뛰어난 10	• 논술의 구성요소(서론, 본론, 결론)를 갖추었으나, 논리적 체계성이나 주제와의 연결성이 부족함 8	• 논술의 구성요소(서론, 본론, 결론)가 충분하지 않고, 논리적 체계성과 주제와의 연결성이 부족함. 6	• 논술의 구성요소(서론, 본론, 결론)를 갖추지 않음. 4
내용 (설계) [20점]	• 문제기반학습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원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기술함. 20	• 문제기반학습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거나, 원리가 충실히 적용되지 않음. 17	• 문제기반학습의 구성요소가 일부 포함되지 않았고, 원리가 충실히 적용되지 않음. 14	• 문제기반학습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고, 원리가 충실히 적용되지 않음. 10
내용 (근거) [10점]	• 수업의 효과성을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그 주장이 타당함. 10	• 수업의 효과성을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 8	• 수업의 효과성을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으나, 설계도형과 학습이론 간의 일관성이 없음. 6	• 수업의 효과성을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지 않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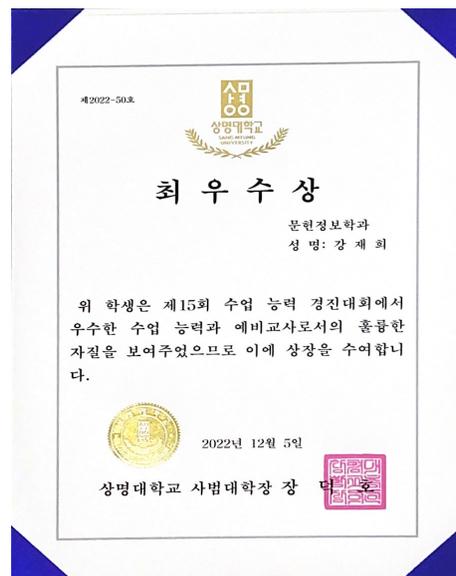
주장이 더 (설계나 근거에서) 필요.

시험 결과도 빨리 공개되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점수에 대한 납득이 쉽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대한 소감 및 강의 수강 후 성취

학습 내용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접하여 배경지식이 있었던 내용도 있던 했지만 주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은 새롭게 학습해야만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학습자 앞에서 내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까지 학기를 마친 지금, 여러 가지의 강의를 들어보았으나 지금껏 들었던 어느 강의보다 가장 상호작용도 많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꺼내야만 하는 강의였습니다. 학습자가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에 임해야 하는 교육,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익숙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했고, 나를 드러내야 하고 피드백을 통해 내가 사고하고 이해하고 학습하는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을 나를 깎아야 하는 기분이 들어 매주 수업 시간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찌지?’, ‘이게 맞는 답일까?’, ‘다른 분들은 저렇게 좋은 답을 내놓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답이진 않을까?’를 매 순간순간 고민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했던 모든 대답의 과정이 모두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토의하여 결과물을 내어놓고 수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모든 학습의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강의에서 배웠던 학습목표를 세우는 법,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는 법은 같은 학기에 들었던 <독서지도>라는 전공 강의에서 ‘독서지도계획안’이라는 과제를 만드는데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만 들었던 자료는 다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에서 배운 가네의 교수설계이론을 근거하여 추가로 보충하여 더 나은 자료로 만든 뒤,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진행한 <2022학년도 미래교사 수업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자료로 예선을 통과한 후 결선에 진출하여 실제 수업 시연을 하게 되었고, 무려 ‘최우수상’이라는 성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고, 새로운 주치가 시작될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던 강의가 다른 강의에서도 활용이 되고 더 나아가 성취를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교단에 서는 것을 꿈꾸는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잡이 같은 강의였습니다. 교직을 이수하게 되면서 내 내 고민하던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고 어떤 수업을 만들어야 하는가?’와 같은 앞으로 교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모든 요소가 허투루 설계된 것이 없고 수업 전반이 잘 짜인 학습의 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를 접하고 나니, 교수님의 비기가 동종 업계의 직종을 꿈꾸는 저는 몹시도 탐이 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나도 이러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들이 진정한 학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며 교수님만의 비기를 저의 비기로 차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1학기에 교생실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2022학년도 2학기에만 생각 나는 강의가 아닌 2023학년도에도 저는 이 강의를 여전히 떠올릴 것입니다. 더 먼 미래에도 바래지지 않는 기억으로 이 강의를 자주 꺼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배움이 더 나은 교수자가 되고, 학습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나아가 똑같이 지겹고 재미없는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느낄만한 수업을 설계하는데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입니다.

비 사범계 교직 이수 특성상 교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만약 후배 또는 아직 해당 강의를 듣지 않은 동기, 선배가 교직 과목에 대한 정보와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이 강의를 단연코 1순위로 꼽을 것입니다. 제가 들으며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다른 동기, 선배, 후배들에게도 길잡이와 같은 북두칠성 같은 과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하는 환율공부

경제금융학부 18학번 김형민

강의소개

이 수업은 경제금융학부 3학년 2학기 학생이 주로 듣는 '환율과 국제금융'이라는 수업으로 '김영준 교수님'께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다.

1. 교수님 소개

김영준 교수님은 경제금융학부에서 국제경제학 파트를 담당하시며 국제경제학과, 경제학의이해, 환율과 국제금융을 수업을 맡고 계신다. 경제금융학부 학생이라면 3학년부터 만나 볼 수 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분이다. 지난 학기 수업 외 다른 내용에 관해 따로 면담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도서관 관장으로 항상 도서관에 계시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시면 종종 음료수를 주시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신다. 교수님은 제 기준 경제금융학부에서 가장 수업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강의력 또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2. 강의 내용 및 목표

우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국제경제학 관련 과목은 '국제경제학'(1학기), '환율과 국제금융'(2학기) 두 과목이 존재하며, 본 강의는 1학기 '국제경제학'의 응용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님의 강의개요에 따르면 강의 내용은 '국제무역, 글로벌경제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화한 현실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과 이슈들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강의 목표는 '세계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글로벌경제의 현황 및 도전과제, 국제금융시장과 환율, 국제수지 및 환율제도와 정책, 개방거시경제학의 주요 주제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이다. 즉 본 강의를 통해 우리는 국제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경제 현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3. 강의 진행 과정

본 강의의 진행은 1~3 주차, 환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 1-3 주차는 기초 강의를 통해 환율의 정확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 습득하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정원리에 관해 배우게 된다. 또한, 환율제도의 변천사를 들으면서 어떻게 환율제도가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환율제도가 성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다.
- 4-5 주차는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에 대해 학습하여 이 두 개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작성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국제수지표를 읽고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6-7 주차는 통화,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관계를 UIP조건을 통해 배우며, 각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돈-부위의 Over-Shooting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인 Over-Shooting을 이해할 수 있다.
- 9-10 주차는 PPP조건에 따른 환율 결정 과정을 배우며 화폐수량설과 연결하여 환율의 변동을 각국의 통화량 변화율과 성장률의 차이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환율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기대와 화폐의 기능 중 가치의 저장수단을 간과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추가적인 Fisher Effect의 성립 방식(합리적기대, 적응적기대)에 따른 환율의 결정 과정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기대가 반영된 현실과 가까운 Over-shooting 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 11-12 주차는 AA-DD 모형을 통해 재화시장과 자산시장에서 환율과 산출이 어떻게 연동되어 움직이는지 설명하며 XX곡선을 추가해 무역수지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경제 변화에 따른 환율과 산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사례들을 통해 실시했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다.
- 13 주차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하고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게 경제 상황을 조정하는 불태화 정책을 배우게 된다. 과거 각국의 금융위기 상황에 따른 중앙은행의 대처를 비교·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불태화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경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며, 그 경우 어떤 위험과 장점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14 주차는 최적 통화 지역 이론에 따른 통화통합의 이익과 통화통합의 손실을 배우고 이를 통해 통화통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통화통합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현재 각국의 통화통합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

4. 강의 추가 내용

본 강의는 팀 프로젝트와 과제는 없고 중간, 기말, 출석 점수만을 반영한다. 시험 난이도는 경제금융학부 수업 중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지만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다.

추천이유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과 과거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과도한 통화량은 세계 경제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미국은 이를 예상하여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나라 또한 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위기 재발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지금과 같이 세계적 경제 혼란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본 강의를 배우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강의의 적절한 사례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수업까지만 해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올해 수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적용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다. 앞으로도 세계화는 지속될 것이고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본 강의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배우며 이해하기 적합하여 세계가 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경제학부뿐만 아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모든 학우들에게 이 수업을 듣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방법

1. 판서 수업

본 강의는 모든 수업이 판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게 된다. 실제 PPT를 통해 진행되는 수업과 비교했을 때 판서 수업은 계속해서 손으로 적으며 수업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좋아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다만 경제를 처음 배우는 타과 학생들이나 수업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힘든 학우들은 필기와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강의 중 어려운 부분의 경우 녹음을 하여 다시 들으며 강의를 이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보충 자료

교수님은 매주 수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외부 자료들을 올려주신다. 동태적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DSGE 모형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은행의 DSGE 경제모형을 올려주셨으며, 국제수지표의 설명을 위해 '한국은행의 경제용어 설명'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올려주셨다. 또한, 수업내용에 적절한 경제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수업자료로 올려주시어 그 주차에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수능에 나왔던 경제 지문들 중 수업에서 배웠던 경제이론 지문들을 발췌하여 설명해주셨다. 이를 통해 지루할 수 있었던 수업을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더욱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매주 새로운 보충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수업내용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공부를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3. 선수과목 리뷰

고학년 과목은 대부분 선수과목을 수강한 뒤 수업을 들어야지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타과생 학생이거나 이전 수업을 오래전에 들었던 학생이라면 선수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수님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기 전 항상 그 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 주신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온 뒤 2년 동안 잊어버렸던 선수과목 내용들을 이 리뷰를 통해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업을 따라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수업을 들으려는 타과생이나 복학생 학생들은 겁먹지 말고 수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4. 외부 강사 초빙

교수님은 매 학기 마다 외부 강사 한 분을 초빙해 1~2시간 정도의 수업을 추진해 주신다.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초빙 수업을 하신다고 한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의 팀장님을 초빙하여 한 시간 동안 국제수지표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초빙 수업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위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 시켜주는 좋은 시간이었고 강사분께서 작은 한국은행 경제용어 책자와 소정의 선물까지 주시어 한 한기 중 쉬어 갈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5. 시험 기출 문제와 풀이

교수님께서 매 시험 전 과거 기출 문제들과 문제 풀이를 전부 e-campus에 올려주신다. 보통 다른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만 올라와 있을 뿐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타과생 학생이라면 혼자서 기출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은 답과 답을 서술하는 과정을 전부 올려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또한, 시험은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6. 시험 전 질문시간

교수님께서 시험 한 주전 질의응답 수업을 통해 시험공부를 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 들과 기출문제 중에서 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주신다. 이는 혼자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이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시험준비를 할 때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 보강 주에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출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꼭 참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강의에 대한 소감 및 수업자료

1. 강의에 대한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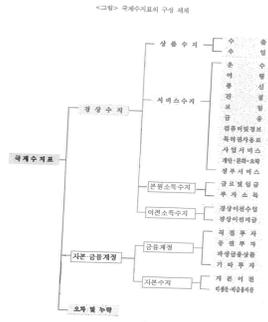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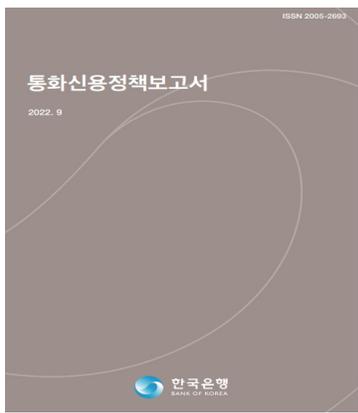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환율과 다른 경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강의는 복잡한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과 세계 경제와의 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 또한 강의를 통해 환율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의 환율변화가 어떻게 작용하며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수지표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현재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본 수업은 세계 경제 변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을 예측해 봄으로써 경제공부를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매우 고마운 수업이다. 현재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 경제 상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교수님의 강의를 3학년 2학기까지 총 3개를 수강했지만 교수님은 한 강의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가르치신다. 이와 같은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항상 좋은 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준 교수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 수업자료

본 강의의 수업자료로 사용된 것들에는 매주 올려주시는 추가적인 보충자료들과 수능문제 & 경제기사 그리고 기출문제와 해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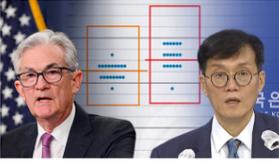
- 보충자료

보충자료는 거의 매주 올려주시며 DSGE모형, 국제수지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이 사용되었다.

DSGE 모형	국제수지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p>거시금융연계 DSGE 모형을 이용한 경기변동 요인 및 통화정책효과 분석</p> <p>배병호*</p>	 <p>국제수지표</p> <p>경제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투자 기타 원천소득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소득수입 원천소득지출 이전소득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소득수입 이전소득지출 <p>외국환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 <p>표지 및 논평</p> <p>자료: 한국은행 '경기변동 분석자료집' (2019) <small>(단, '경제수지' 내역은 국제수지표에 편제기준(2018)과 주시경 4차(2011)와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음)</small></p>	 <p>통화신용정책보고서</p> <p>2022. 9</p> <p>한국은행 BANK OF KOREA</p>

- 수능문제 & 뉴스기사

경제 지문 중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이 나오는 수능 지문들과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뉴스 기사들을 올려주셨다.

수능문제	뉴스기사
<p>4 국어 영역 꼭수형</p> <p>[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10.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①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심의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④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프리먼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계속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p> <p>11. 뒷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② 프리먼의 이론은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프리먼</p>	<p>22. 9. 22. 오후 5:46 KBS NEWS</p> <p>KBS NEWS</p> <p>시장은 '자이언트스텝' 아닌 '점도표'에 놀랐다</p> <p>2022.09.22 11:30 09:50:00~10:14:30.24</p>  <p>■ 예정된 약재?</p> <p>예정된 약재는 약재가 아니다. 효율적 시장은 예정된 약재는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다.</p> <p>그런데 이번 연준 결정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다르다. 0.75%p 인상,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은 예정된 수준이었다. 시장은 이른바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르는 1.0%p 인상을 걱정했다. 그러나 0.75%p 결정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뜻</p>

- 기출문제 &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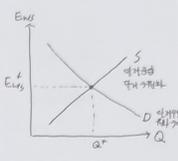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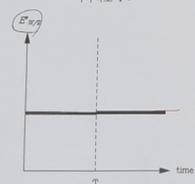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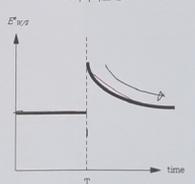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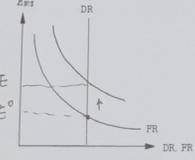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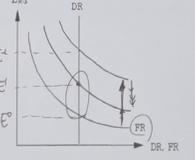
매 년도 기출문제와 해답들을 올려주셨다.

기출문제	해답
<p>4.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8 points)</p> <p>1) 금본위제(Gold Currency Standard)가 지난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하나씩 제시하고 금본위제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게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p> <p>2) 피셔가설(Fisher Hypothesi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또한 고전적 이분법(Classical Dichotomy)은 피셔가설과 어떠한 점에서 서로 연관되는 개념인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p>	<p>4.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8 points)</p> <p>1) 금본위제(Gold Currency Standard)가 지난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하나씩 제시하고 금본위제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게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p> <p>(장점) 통화단위의 안정 (통제가능) (· 통화량이 외환에 의해 정해짐) 무역수지 결핍을 완화하는 자동메카니즘 가능</p> <p>(단점)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어 더동태이론 한순 가능 (경외수요의 증가 요인)</p> <p>2) 피셔가설(Fisher Hypothesi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또한 고전적 이분법(Classical Dichotomy)은 피셔가설과 어떠한 점에서 서로 연관되는 개념인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p> <p>π^e의 변동은 명목이자율 수준에 1:1의 영향을 미친다 (즉, 실물변동은 동반)</p> <p>$i_{\text{rate}} = r_{\text{ex}} + \pi^e$</p>

3. 본 강의를 공부했던 방법

김영준 교수님 과목의 시험은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시험 결과 평균이 대략 50~60점대이다. 이는 국제 경제학 파트가 어려운 내용일뿐더러 교수님 또한 항상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인 것 같다. 본 강의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시험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제가 이 수업에서 A+를 받았던 공부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 강의는 많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주기적인 복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주 주말마다 노트정리를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개념정리를 끝냈다면 시험 2주 전 기출 문제를 풀며 문제 유형을 익히고 내용을 복습한다. 이때 모르는 문제

와 내용 들을 기록하여 질문 목록을 만들어 두고 시험 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록했던 내용들을 해결하여 시험준비를 마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김영준 교수님의 시험을 준비한다면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트 정리	기출 풀이
<p style="text-align: center;">환율과 국제금융 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이란 무엇인가? 환율의 의미: 각국 통화의 교환비율 (상대적인 가치) 도입: $E_{\\$/\text{€}}$ A국 통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B국 통화의 가격 예) $E_{\\$/\text{€}} = 1.695$ 원은 기준으로 한 일본 엔화의 가격 $E_{\\$/\text{¥}} = 1850.1$ // 이가 달러화의 가격 환율 하락 → 일본 엔의 평가절상, 환율 상승 → 원화에 평가절하 $\frac{w/\\$}{w/€} = A \rightarrow \frac{w/\text{€}}{w/\\$} = \frac{w/\\$}{w/\\$} = \frac{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시장과 환율의 변화에 과정 외환시장: 외환이 거래 되는 시장 (FX Market), 거래량: 50억 달러 이상, 통화량: 달러화(45%), 유로화(15%), 엔화(10%) 환율, 선물, 옵션, 스왑을 다룬다 선물 환율 (forward rate): 현물환율 + 스왑 프리미엄 (달러인출권사서), $F_{\\$/\text{€}}^{\text{12month}}$, $F_{\\$/\text{€}}^{\text{1year}}$ → 시장에서의 여러 시장이 대한 환율에 대한 기대 → 기대에 따라 달러 가치가 변동함 (volatility) > 선물환율 volatility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시나리오 1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시나리오 2 ></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E_{\\$/\tex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E_{\\$/\text{€}}$</p>  </div> </div>

도전과 성장: 함께 만드는 수업!

영어교육과 19학번 **곽효석**

강의 소개 및 학기 과제 선정

첫 번째로 <지능정보기반영어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수강한 이 과목은 영어교육과의 데이브드켈로그 교수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영어교육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 과목으로 교과목의 주된 목표는 미래 영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교과서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것인지 탐구하고 실제로 학습 도구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수강생들끼리 어떠한 학습 도구를 만들지 고안하던 중 교수님은 '웹툰'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때마다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툰을 보는 것이 인상 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동시간, 혹은 자투리 시간에 웹툰을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면 재미와 효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에서 영감을 받은 저희는 각자 웹툰과 영어교육을 융합한 영어학습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웹툰을 만들기에 앞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요소는 'Is it interesting?'로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웹툰이 재미가 없다면 학생들이 굳이 영어로 된 웹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요소는 'Personality(자아&성격), Partnership(이성 관계), Profession(직업&진로)'이었습니다. 이는 저명한 교육학자인 비고츠키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은 청소년기에 누구나 앞서 말한 3P에 관한 고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로그 교수님께서서는 웹툰에 이 3가지 P를 녹여내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공감을 더욱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를 겪었던 저희는 비고츠키의 3P 개념에 동의했으며 웹툰을 만들 때 3P를 웹툰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고려 요소는 'Can it be good for their lives?'였습니다. 저희가 만들 웹툰이 3P와 함께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할지가 또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기에 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은 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미', '3P', '긍정적 영향'이 3가지가 웹툰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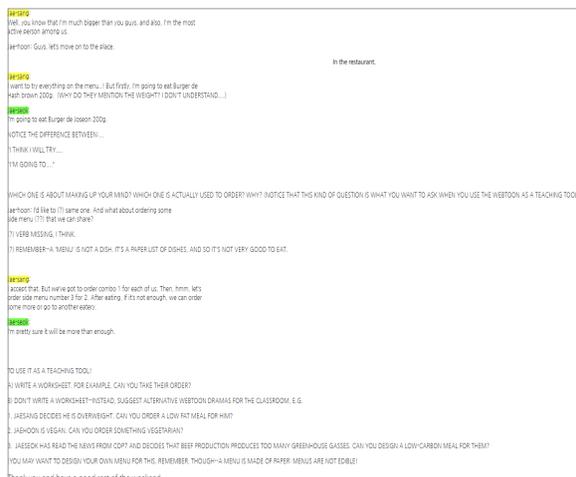
강의 추천 이유 및 수업방식

두 번째로는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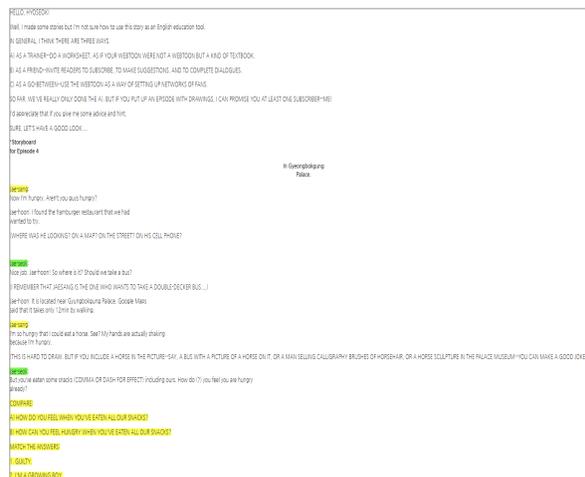
첫 번째 이유는 교수님의 '끊임없는 피드백'입니다. 저희는 매주 다음 강의와 관련된 과제가 있었습니다. E-campus의 Q&A 게시판에 수업 전 과제를 올리면 교수님은 단어, 문법 등 저희의 영어와 관련된 피드백은 물론, 저희가 더욱 나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도 항상 주셨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저희의 과제와 관련되거나 파생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를 수업에서 다루어 주시기에 영어 실력은 물론 사고력 또한 확장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교수 능력의 향상'입니다. 교수님은 미래에 교단에 서게 될 저희에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발화, 문법과 어휘사용, 다양한 교수법 활용, 학생들의 주의를 끌어내는 법,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중, 고등학생들은 성인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보통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어떠한 말과 행동은 피해야 하는지를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에 맞춰 교육자들은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수업을 만들어가야 하는지까지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이 같은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실제로 이번 학기 10월에 나갔던 교생실습에서 중학교의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함께 즐거운 수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채로운 수업 형태'입니다. 교수님과의 질의응답, 학우분들과의 토론, 웹툰 번역, 웹툰 캐릭터가 되어 사고하기,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웹툰, 동영상 만들기 등 가지각색의 수업 형태를 한 과목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교단에 서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형태인 '강의식 수업'만을 하는 것을 지양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강의식 수업만을 하는 것을 반대하시며 실제로 저희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면 좋을지 무척이나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같은 교수님의 다양한 수업은 수업에 대한 준비가 빈약하거나 강의에 열의가 없으면 절대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의 이유는 학생으로서 교과목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1



과제에 대한 피드백2

Now, actually I DID do the homework last time. Here was what I did.

But I noted some problems!

SOUNDING/SPELLING:

QUESTION: When is "earth" capitalized and when is it not?

Two possible theories:

- "Earth" is capitalized when it is SINGULAR (when there is only one "earth") but it is NOT capitalized when we are talking about other planets, because it's just one of many planets.
- "Earth" is capitalized when it is a NAME (when we are talking about Earth as the place we live, like Seoul, Korea, Asia) but it is not capitalized when it is a NOUN (when we are talking about "the earth", "the sky", etc.).

(Which theory do you think is correct?)

QUESTION: "Why does only Hera have a name? What about the other characters?"

Suppose the teacher wants to TEST the names. She does this:

T. Who is the wise one? Which one is the wise one? What's the name of the wise one?

(What does the teacher ask about the lovely one?)

So here is the homework assignment!

Can you divide it into cartoon panels and make a webtoon? Can you make sure that the webtoon includes:

- Fill in the blanks!
- Answer the questions!
- Meet a friend and discuss!

As you can see, it is already divided into panels. So the first panel has the following cartoon.

PANEL ONE: Fill in the blanks!

Paris: ?????? Where on earth are you from?

Mercury (God of Communication): I'm not from earth at all. I'm from.....

Hera (Goddess of Power): I'm Hera. At Olympus, I'm the strong one. Don't you want to be ...?

PANEL TWO: Answer the questions.

Paris:

Athena: I'm the wise one. Don't you want to be wise?

Paris:

Aphrodite (Goddess of Love): I'm the lovely one. Don't you want to be loved?

Paris:

Artemis (Goddess of the Moon): I'm not strong, or wise, or lovely. But I don't want your golden apple anyway.

Paris:

PANEL THREE: Meet a friend and discuss:

As you can see, Artemis is walking away with her two friends. What are they feeling? What are they thinking? What are they saying? Is it "sour grapes"?

고대 벽화를 이용한 수업자료

교수님의 숙제 예시

	2022-11-04 16:02	PARIS: I can't wait! Where's the next episode, Aida?
	2022-11-06 20:35	Jen: Me, neither! I am just wondering that boy's name. Also, is that the boy who is speaking, "Welcome to Kazakhstan!" or there is some other people? I'm just asking that speech ballon's direction is somewhere else.
	2022-11-07 10:07	PARIS: I think the boy's name is Almas. Sara thinks he's hot! Elsa is more into Noah.... (You can see that our Webtoonist doesn't go for K-drama...)
	2022-11-11 19:38	JAE-HEE: Where is the body? Looks scared!
	2022-11-13 16:29	PARIS: You mean scary or scared? (Maybe the voice is coming out of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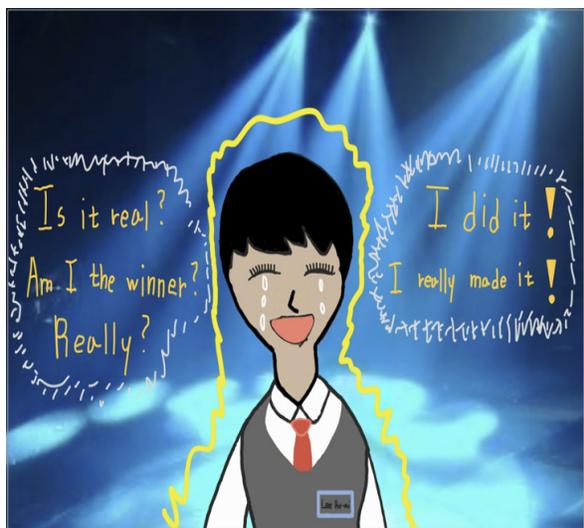
다른 사람의 웹툰에 댓글 달기

강의 결과물 소개

세 번째로는 강의를 통해서 만든 저의 결과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영어 웹툰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는 비고츠키의 3P를 웹툰에 잘 녹여내야만 했습니다. 그중 저는 3P 중 하나인 Profession(직업 & 진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진로에 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이 저의 웹툰을 통해서 재미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얻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툰의 제목은 'Rumi's Journey to the Life'로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인공은 미래의 진로를 놓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15살의 소녀로 설정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좋아하던 루미는 가수의 꿈을 꾸지만 엄마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루미는 학교의 음악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결국 본인의 꿈을 향해 노력해도 좋다는 엄마의 허락과 지원을 성취해 냅니다. 자신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루미의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앞선 강의 소개에서 얘기했듯 재미, 3P, 긍정적 영향 모두를 한 데 담아냈으며 그렇게 루미의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worksheet(학습지)가 아래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Worksheet :: Rumi's Journey to the Dream

Date: _____ Class: _____ Name: _____

Look at scene 3 in the 1st episode and answer the question.
Q1. What kinds of verb types come after the auxiliary verb?
 a) bare infinitive b) to infinitive c) past tense verb

Look at scene 4 in the 2nd Episode and answer the question.
Q2. Which one is correct?
 A: How can you survive among them?
 B: How can you survive between them?

Look at scene 2 in the 3rd Episode and answer the question.
Q3. Which one is correct?
 A: The 10th Sangmyung Middle School Singing Competition
 B: A 10th Sangmyung Middle School Singing Competition

Look at scene 3 in the 4th Episode and answer the question.
Q4. How does she feel?
 a) happy b) sad c) sorry d) nervous

Look at scene 4 in the 5th Episode and answer the question.
Q5. What preposition should be put?
 Rumi's mom believes -- Rumi.
 a) in b) at c) of d) on

Look at scene 4 in the 6th Episode and answer the question.
Q6. What preposition should be put?
 Rumi's mom is so proud -- her daughter.
 a) in b) at c) of d) on

Worksheet

All Night Webtoon

personality partnership profession

P1 P2 P3

Three peaks that adolescents have to deal with

다른 학우분들의 웹툰

소감 및 마무리

마지막으로 과목을 수강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기반영어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전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목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웹툰 그리기, 동영상 만들기, 웹툰 번역과 같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도전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안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학부시절에 혼자서 어떠한 도전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한 교과목 내에서 정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어 웹툰을 3P와 접목시키고 또 학습 도구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수님과 학우분들의 지지와 피드백을 통해서 투박하지만 'Rumi's Journey to the Dream'을 완성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도전을 교수님과 학우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부가적으로 A+라는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웹툰 속의 '루미'와 같이 도전했으며 그로 인해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성장을 꿈꾸는 학우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간 수업

국어교육과 17학번 **전한경**

시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2016년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이 호시 신이치 문학상 1차 예심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시로 제작한 그림이 우승을 차지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인간은, 단순 반복 작업이나 데이터 학습 영역이 기계와 인공지능에 대체된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였지만 인문학(人文學)의 영역조차 인간만의 사유가 아니게 되었으니 이제 이것은 선 넘었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문학의 ‘인’이 바로 ‘사람 인’인데 어딜 감히! 하며 호통을 치고, 인간은 꽃보다, 아니, 시보다 아름다워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소설과 그림도 문학과 예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첨예한 토론이 오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인간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인간이 멸종되지 않도록 인간성을 주입하고 알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세상을 알려주고 감성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 강옥희 교수님의 <소설교육론> 수업이 바로 그것이다. 시가 이 수업마저도 학습하여 인간성을 넘보게 되면 큰 낭패이니 지금부터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비밀스럽게 꺼내볼 계획이다.

수업 개요

<소설교육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한국 현대소설 작품을 강독한다. 소설이론과 소설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이 속하는 시대의 문학사를 알아보며 올바르게 깊이 있게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주 교재는 매주 다룰 작품이 실린 책이고 각자 알아서 구해 와야 한다. 부 교재로는 ‘한국소설문학대계’, ‘20세기 한국소설’, ‘국어 교과서 작품읽기 전14권’, ‘문학교과서 작품읽기 전10권’,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이다. 하지만 이 교재의 내용들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꼭 구비할 필요는 없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작품을 다루지 않고 소설교육과 소설이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5주차부터 근대문학 <무정>을 시작으로 문학사 연대기에 따라 작품을 위주로 수업한다. 이때부

터 매주 작품을 읽고 발문을 작성해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한 작품은 독후감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업 시간이 되면 읽어진 책과 발문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토론을 진행하고 작품을 조사해온 조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에 교수님의 심도 있는 정리와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은 주차별 다른 작품과 연계되는 소설교육 주제이다.

주	작가, 작품	강의 내용 및 학습 목표
5	이광수, <무정>	근대문학과 계몽주의
6	염상섭, <만세전>	리얼리즘
7	최서해, <탈출기>	신경향파와 프로문학
9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모더니즘과 작가들
10	이태준, <달밤>	서정소설
11	채만식, <논이 이야기>	풍자와 해학
12	김동리, <역마>	순수소설
13	이범선, <오발탄>	전후소설
14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이데올로기와 문학

*8주차: 중간고사 기간

<주차별 강의계획>

수업 전

- 책 빌려 읽기

책을 구하고 읽어오는 것부터 수업의 일부이다. 작품을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책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작품을 읽기 위해서 또, 후술할 수업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책을 하나 빌리는 것이 좋다. 책을 빌리기 위해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 전자도서관을 간다면 이미 늦었다. 재빠른 학우들이 전부 빌려갔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 도서관에서 책



<우쭈름의 결과물, 독서 인증샷>

빌리기를 실패했다면 학교 근처에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종로도서관, 정독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집 주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면 된다. 또는 '교보도서관 상명대학교(천안)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예스24 도서관'에 지역도서관을 등록하면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책을 빌려 읽는 것은 그것이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독서하는 인간'이라는 자의식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게 하고 쉽게 우쭐거리게 만든다.

- 발문하기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으며 불쑥 들은 생각이나 질문들을 막힘없이 적어 내려간다. 이것이 '발문하기'이다. 어떤 내용이어도 좋다. 자신이 책을 읽으며 들었던 감상을 자유롭게 적는다.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적어본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조별 토론의 주제가 된다.

발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업 전에 반드시 작품을 먼저 읽어보아야 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올릴 수 있다. 독서토론활동을 따로 시간 내어서라도 꼭 하고 싶었는데 수업과 과제를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또, 발문하기가 습관이 되면서 책을 읽을 때 물음을 던지는 독서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인물이 왜 그랬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등 책을 읽으며 다양하게 생각해보게 된다. 혼자 물음을 던지고 나름대로 생각한 답이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에 정돈된 글자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 발문이 일리가 있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 주체적인 감상 능력을 얻는 것은 덤이었다.

만세전 발문하기

1. '나'가 김천의 형님에게서 아내가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조선으로 가는 길에 단골 카페에 들러 정자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아내의 죽음에 이렇다 할 충격도 받지 않는 이유는?
2. '나'가 "겨우 무덤에서 빠져나왔는데요?"라며 다시 동경으로 돌아간 이유가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는 일제 강점 하의 조선 민중의 삶을 원하지 않아서일까, 전근대적인 조선의 모습에 실망해서일까?
3. 일제 치하에서 "무덤"이 된 조선을 본 지식인 '나'는 근대로 나아가기 위한 계몽 운동이나 일본에 저항하는 항거 운동을 하는 대신 동경으로 돌아가기를 택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지식인이 도피하는 모습으로 결말을 쓴 작가의 현실 인식은 어땠을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발문하기

1. 이 소설은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집을 나와 장소를 이동하며 보고 듣고 겪은 일들에 대한 '구보'의 생각과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다면 '구보'를 '나'로 상정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소설 중간 장면이 전환될 때 문단의 첫 어절의 폰트 크기를 크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범선, <오발탄> 발문하기

1. 영호의 말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양심, 윤리와 관습, 법률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철호의 생활태도는 옳은 것일까?

〈작품 감상 후 발문 예시〉

수업 중

- 토론하기(+댓글 달기)

수업 시작 전에 이캠퍼스 메시지로 조가 발표된다. 4~5명으로 편성된 조에 따라 학생들은 모둠을 지어 앉는다. 토론 조가 매주 바뀌었는데 매주 다른 학우들과 토의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우들이어도 서로 잘 몰라 수업 분위기가 조용하고 딱딱해지게 되는데, 토론을 통해 조금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게 되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조

수업 후

- 독후감 쓰기

총 9개의 작품 중 하나를 골라 독후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독서 후 스스로 발문해보고, 학우들과 토론해보고, 발표를 듣고, 강의를 들은 뒤 쓰는 독후감은 지난 세월의 독후감에 비하면 수준 높은 비평이 된다. 실제로 나는 이 독후감으로 '상명예세이경진대회' 비평 부문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책을 읽고 난 나의 솔직한 감상과 수업을 통해 배운 문학사, 작가론, 소설이론의 내용들이 모두 떠올랐다.



〈과제도 하고 상도 타고〉

인간 수업, 〈소설교육론〉

앞서 시가 도래한 시대에 인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기계나 인공지능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고 따라서 인간 멸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정 지능과 인문학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학은 인간과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감정을 일렁이게 만든다. 이 수업은 그 감상을 토해내듯 쓰고 말하도록 하고 문학사와 소설이론과 함께 정갈하게 정리해준다. 공현진 외의 〈아직 오지 않은 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시의 아름다움은 잉여의 자리에서 나온다고, 구성과 형식의 공식이 아닌 그 빈틈에서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소설도, 인간도 마찬가지다. 깔끔하고 자습서스러운 정리가 더 똑똑해보일 수 있지만 작품을 감상하고 터져 나오는 발문과 토론하며 공감하는 감탄사. 이 잉여의 것들을 실현하게 하는 수업 〈소설교육론〉을 듣고 졸업할 수 있어 나는 즐거울 따름이다.

결혼이 대체 뭔데?

생명공학전공 21학번 **윤한서**

유튜브나 뉴스, SNS 등에서 근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삿거리가 있다. 매년 최저라고 갱신되고 있는 출산율, 30대 미혼율, 1인가구의 증가, 비혼주의 등이 그 예시이다. 지금의 20대들 역시 해당기사의 주인공이거나 머지않아 주인공이 될 것이다. 어릴 땐 그저 어른이 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부모님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로 현재 젊은 세대의 상황은 처참하다.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함을 넘어 의무적인 느낌마저 들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결혼이 주는 무게감과 부담감이 과거 세대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음을 느끼고 있다.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인 시점에서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을 때 들은 강의가 류민영 교수님의 <결혼과 사회> 과목이다.

류민영 교수님의 <결혼과 사회> 강의에서는 평등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선택으로서의 결혼에 초점을 두고, 결혼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결혼이 개인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생애과정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한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 생애과정을 계획하며 생애과정에서 가족이 지니는 의미와 친밀한 관계, 일과 직업 역할, 부모 지위와 역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과 타인의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내가 류민영 교수님의 <결혼과 사회>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족이라는 형태가 주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를 붙잡고 '결혼이 뭐예요?' 혹은 '가족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그간 결혼이라고 하면 그냥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과정이 결혼이고 그렇게 만난 부부나 자식을 낳으면 그 구성이 가족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막연하게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류민영 교수님의 <결혼과 사회>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그동안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굉장히 편협했고 내가 아

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결혼과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다. 수업에는 결혼이라는 주제 속에서 결혼 당사자가 될 '나'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결혼과 가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업 중 진행된 활동들을 통해 나조차도 나를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의 9주차 내용에서 나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이 있다. 이 활동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나 자신에 대한 내용임에도 답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매 질문마다 대답하기 어려웠던 나를 돌아보면 이 시간을 통해 나조차도 나를 몰랐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질문과 활동들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 번째, 부부로서의 역할과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미혼 상태이며 자식이 없을 것이다. 부부란 무엇이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텐데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관찰해온 부부가 부모님 말고는 그리 많지 않기에 관찰 경험 역시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부부란 단순히 혼인관계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 부부관계에서의 역할, 삶의 방식과 갈등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혹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수업이었다. 또 부모 경험이 없지만 부모로서 가져야 할 태도 가족단위의 계획 등 간접적으로나마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외에도 남녀간의 차이,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이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배우는 데 이 시간이 학생들의 집중도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또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끼리 짝을 이뤄 만원을 가지고 하루동안 데이트를 하는 '만원의 데이트'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각 활동을 끝내고 간단한 발표자료를 통해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 여러 팀의 발표를 들었던 흥미로운 기억이 난다. 발표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체험활동은 그냥 이성과 데이트하는 기회를 주시는건가 싶었지만 이건 나의 착각이었고 발표를 듣고 나니 '만원의 데이트'는 전공이나 나이 등 많은 부분이 다른 분야의 학생과 하루동안 교류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접해보고 경험해보는 일종의 견문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느껴졌다. 사실 만원으로 하루 데이트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산책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코스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상대방에 대해 많은 대화를 통해 더 잘 알게 되는 교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점에 놀라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기대수명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 청년들의 결혼의향 변화, 조혼인율, 비혼과 동거, 가구 유형의 다양성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맞벌이 가구 변화, 인간 발달 과정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강의라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수업내용 자체가 특정학문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 무겁지 않게 배우는 수업이다. 류민영 교수님께서도 수업내용에 대한 예시와 자료들을 혹은 경험담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내내 지

루하지 않았고 나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주제의 내용들이다 보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강의의 제목은 <결혼과 사회>이지만 그걸 넘어 사람간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가족계획표를 그리는 등 인생의 전반적인 프레임을 잡아나가는 인생수업이라는 생각이 든 강의였다.

수업을 통해 새롭게 배웠던 내용중에서도 내게 있어 인상 깊었던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의 다양한 형태이다. 가족의 형태라고 하면 대가족 혹은 핵가족 정도로 막연하게만 생각해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각 형태의 가족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장애아가족, 다문화가족, 미혼모와 미혼부, 입양가족 등 가족의 형태는 이렇게나 다양한데 막상 어떠한 유형의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의 형태들이 쉽사리 나오지 못하는 건 아직까지도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과 오해들로부터 이들은 다수의 가족이 받고 있는 제도적 복지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색안경을 끼고 이들 가족 형태를 보는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던져진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 모습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몇 개 있습니까?’란 질문에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편협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느껴진다. 또 아래의 <그림 2>에서처럼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해 왔던 표현들이 특정 상황의 대상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온 가족의 형태와 그 구성에 대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또다른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낸 결과라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 모습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몇 개 있습니까?
 - ✓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 ✓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 ✓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 ✓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 ✓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그림 1> 다양한가족수용성증진교육에서 활용된 특강자료 일부

교육 속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변OO. 고등학교 교사

'엄마, 아빠'라 구분하지 말고 → '가족 구성원'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엄마한테 사인을 받아오라 했어요.
보호자라고 해야하는데 엄마라고 한거죠.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데...
이미 말해버린 후였어요.



김OO.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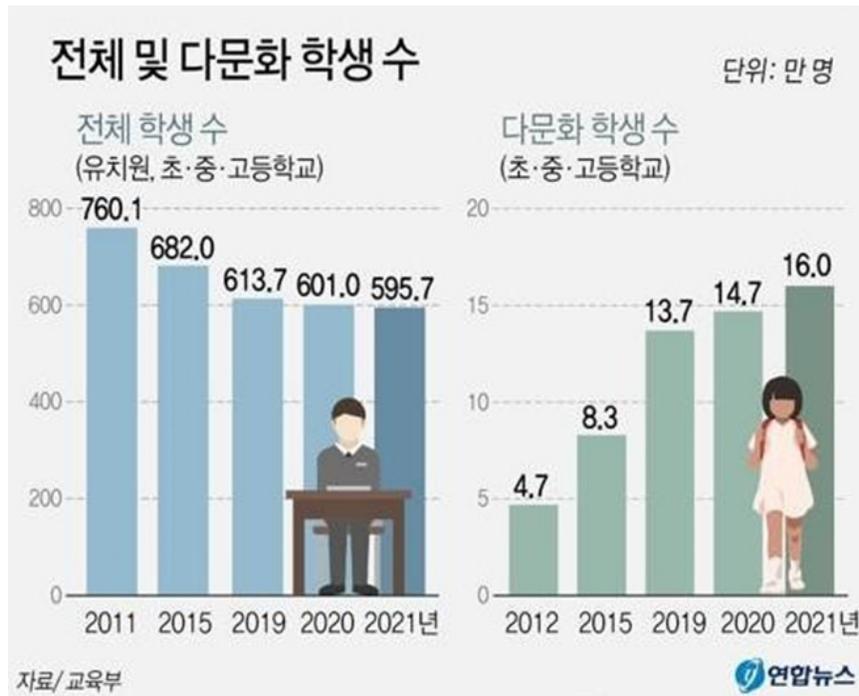
부모와 함께 하는 요리라고 하면 될걸
아빠라고 꼭 짚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생각없이 하는 말에 듣는사람은 상처를 입는 거죠.
교육은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림 2〉 다양한가족수용성증진교육에서 활용된 특강자료 일부

생각이 든다. 악의적으로 구별지으려 한 것이 아니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여긴 범주,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여겨진다.

이 내용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차별, 색안경과 같은 단어는 나와는 동떨어진 단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나 역시 평범함이라는 울타리를 내 스스로 지정하고 그 밖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오해나 편견을 가지거나 혹은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느껴져 부끄러웠다. 〈결혼과 사회〉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어 좋았고 편견의 경계를 허물고 열린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과 스스로 정해버린 생각의 기준이 편견이 될 수 있음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꽤나 이기적으로 생각해온 나를 꼬집어 준 고마운 수업이다.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도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라 새롭게 다가왔다. 과거의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결혼시장과 가족형태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그림 3〉을 보듯이 국제결혼의 비율과 국제결혼 대상국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는 늘고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도 제도적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같은 다인종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국적이 다르다고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그림 4〉에서처럼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시선은 다른 가



〈그림 3〉 다양한가족수용성증진교육에서 활용된 특강자료 일부

미혼모·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기사들

TV - 드라마

“너하고 우린 근본부터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다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 딸 주제에 어디서 감चे!”
- 드라마 스카이캐슬 중 -

“하긴, 엄마없이 자랐으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웠겠어?”
- 드라마 빕의 중 -

2019년 큰 인기를 얻었던 TV드라마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구요.

TV - 예능

“이쯤되면 동네 돌싱복”
- 예능 아는형님 중 -

“확실보다는 돌싱이 낫구나?”
- 예능 아는형님 중 -

“형님은 여기서 이혼남이신 거죠?”
- 예능 미운우리새끼 중 -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웃음의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림 4〉 다양한가족수용성증진교육에서 활용된 특강자료 일부

족형태에 비해 더욱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혼모 미혼부 가정 역시 엄연한 가족의 한 형태이며 단순히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제시하면서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좋았지만 그런 가족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오해, 제도적 지원들의 허점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미숙하고 사람들의 인식 역시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수업을 듣지 못했

더라면 나 역시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앞으로 쪽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도 배우고 나를 돌아보며 부끄러움도 느낀 시간이었고 이러한 개선된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과 사회〉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 안에 있던 막연한 그리고 깊이 다뤄보지 못했던 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처음에 언급했듯 결혼이라는 큰 주제와 거기에서 파생된 세분화된 내용들을 배우는데 이는 곧 우리 학생들이 마주치게 될 현실이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통해 미리 한번 정리하고 나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지녔으며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결혼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수업이었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삶을 꾸려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을 들은 후 인생설계 가족, 결혼, 이성관, 사람과의 관계, 갈등대처 등 다방면으로 수업듣기 전과 달라진 나를 볼 수 있었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계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결혼과 사회〉 라는 수업을 통해 얻었고 많은 학생들에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남녀 사이의 이성관계는 무엇인지 가벼운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앞으로의 인생설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류민영 교수님의 〈결혼과 사회〉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수업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준 〈결혼과 사회〉 수업을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로 남기고자 한다.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교육학과 21학번 정서희

나는 이번학기에 이현우 교수님의 <교육공학> 수업을 들었고, 다음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 첫 교육공학 수업 수강 계기는 이 과목이 교육학 교원 자격증 '필수'이수 과목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선배님들의 수강 후기를 읽어 보니 과제의 양이 많아요, 박센 과목이에요 등 힘들어하는 후기가 많아 겁을 많이 먹었고, 힘들 것이라고만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듣게 된 교육공학 수업은 예상 밖의 '꿀잼'과목이었다.

이 수업은 교육공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수-학습 이론 및 교수설계이론등을 배우고, 교수설계자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도록 수업하시지 않고, 학생들이 실습과 상호작용 속에서 개념을 응용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신다. 따라서 수업 구성원 간의 협력, 팀원과의 협력이 중요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이 이해된다.

-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

교육공학 수업을 듣게 되면 다음 나열된 단어를 잊을 수 없다. 왜냐면 수업 자체가 이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나열된 단어는 교수설계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모형인 ADDIE 모형의 원리이다.(알파벳 자로 에이디디아이 모형이라고 읽으면 안되고, 에디 모형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 원리 속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를 분석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설계 단계에서는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수업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수업시연을 진행하는 등 실제로 실행해보고,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수업을 평가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개념을 통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육공학 수업의 장점 때문이다. 교육공학 수업 때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여러 활동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다음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 중 인상깊었던 몇가지 활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 수업 (수업 5분 짜기)에서는 옆에 보이는 사람과 합쳐 4명씩 조를 짜서 아무 주제나 (자유 주제)로 5분의

수업시연을 설계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조를 짜서 수업을 설계한 것이기도 하고, 5분이라는 수업 시간에 맞게 발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 조는 특정 운동 (ex) 스쿼트) 같은 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단순히 수업을 설계하기만 했는데, 발표 후 교수님이 학습 목표를 하나하나 질문하셨다. 강의 시연을 할 때에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 강의에 학습 목표가 적합한지 점검해 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학습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 내가 작성한 토론 글 예시



학습이란 읽고, 안 내용을 완벽하게 인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2022-09-13 20:54 경서희 에 의해 작성

내가 생각하는 학습이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남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때까지 훈련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예시로 중고등학생때 한국사 시험을 보기 위해 암기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학습한 부분에 대해 친구가 질문하였을 때 답을 하지 못하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암기를 하였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인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학교 현장에서도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배운 것을 말이나 글로 인출해내는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신: 학습이란 읽고, 안 내용을 완벽하게 인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2022-09-15 21:44 김용환 에 의해 작성

안녕하세요. 경서희 학우님!! 학습한 내용을 남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때까지 훈련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경서희 학우님과 같은 일이 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결과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단순 암기도 어느 면에선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것을 지향 해야하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원글 보기](#) | [답변 등록](#)

- 동료의 피드백 예시

두 번째 활동으로 내가 생각하는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온라인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학습은 단순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앞에서 인출까지 해 낼 수 있을 때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내 의견을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 학생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내 의견도 타 학생과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교육공학 강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타 강의의 경우 개념의 정의에 대해 혼자 생각하고 암기에 그칠 경우가 많았는데, 수업 안에서 교육공학의 핵심이 되는 '학습'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봄을 통해 수정하게 됨으로서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학습이 아닌 학습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더욱이 혼자서 학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는 생각의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업 안의 활동으로 이렇게 타 학생과 토론하면서 생각을 비교해보니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이 확장되었다고 느껴졌다.

또한 세 번째 수업 내 활동으로 수업 중 분리수거 지도안 작성이라는 과제를 맡게 되었다. 이는 대상 학습자를 학습별로 설정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수업하기 위한 지도안을 팀별로 작성하는 활동이다. 이때 우리는 학습자가 어떤 학습 수준인지, 학습 환경은 어떤 상태인지, 학습 매체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업 내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ADDIE모형 활용하여 교수학습지도안 작성하기라는 중간

과제에 다가설 수 있었다. 혼자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교수학습과정안의 작은 예시를 작성해보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이라는 큰 과제가 저절로 체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ADDIE 모형의 기본 원리를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수업 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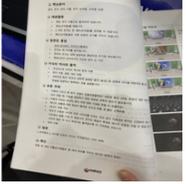
Edutech Korea Fair 참관계획

팀 구성	
팀명	와글와글
팀원	정서희 (202110401), 허동희 (202110406), 홍창우 (202110407)
방문계획	
방문 일시	2022.09.23.금. (10:00~)
참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정서희 - AI 러닝 허동희 - 창의융합 & 교구 홍창우 - 스마트 교구 & 기자재
카드뉴스 제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분담• - 각자 맡았던 부스에 대한 소개 및 공통된 흐름을 제시 - 각자 맡았던 주제에 대해 페어에서 인상깊었던 점이나 느낀 점, 새롭다고 느낀 점 등을 제시 •후기를 공유한 뒤 소감• - 각자 맡았던 주제를 팀원들과 나누고, 자신이 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 느낀 점을 제시 •백본• - 1인당 최소 6장 이상.

메이커스 테크놀로지

✓ VR 과학실험 교육

이 회사는 VR을 통해 과학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과학 실험 중 실제로 보지 못하는 분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사용 지도서도 따로 제작되어 과학 교육을 편리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실험을 여건상 하지 못하는 학교 과학교육 현장에 실험을 가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좌측부터 참관계획, 카드뉴스 제작 예시

수업 중 에듀테크 박람회에도 가게 되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맞춤형 훈련과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 박람회에 가기 위해 팀원을 모아 첫째주(3주차) 수업에서는 관람 계획서를 짰다. 4주차에는 관람 계획서대로 실제 페어에 방문하여 팀원들과 페어를 관람하고, 다양한 교육용 도구들을 관람하였다. 관람 후에는 팀원들과 함께 교육용 기기의 홍보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과제를 위해 첫 번째, 기기 박람회에서 각각의 도구들의 활용도에 대해 주의깊게 들었다. 카드뉴스에 정확한 설명을 담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팀원들과 협업했다. 약 20장 정도 분량의 카드뉴스를 작성하기 위해 카드뉴스에 담을 내용, 사진의 위치까지 모두 협의 하에 작성했다. 이러한 수업 설계 덕에 박람회 관람이라는 과제가 단순히 '관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제 안에서 관람 계획 작성법, 이용 후기 작성 법, 카드뉴스 제작법 등 다양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도 있었고,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덕분에 타인과 협업하여 작품을 만드는 협업능력, 내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배우는 의사소통력을 기를 수 있었다.

소통하고 노력하는 교수님의 모습, 학습 의욕을 높인다.

다음으로 교수님의 어떤 부분이 수업에서 인상적이었는지 말해보려고 한다.

1. 교수-학생간 활발하고 자세한 피드백 나누기

대학에 와서 사실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 사실 나 역시도 교수님께 질문하러 다가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공학 수업에서는 팀 활동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바로바로 질문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받는다. 나 역시도 PBL 수업을 구상할 때 생겼던 궁금증이 있었다. 바로 교수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현우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믿으라’는 말을 계속 해주신 덕에 팀원들과 설계안 작성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거의 배제하고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안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시는 교수님 덕에, 수업 시간 내내 있었던 팀플의 방향성과 어려움 속에 헤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

2. 교수님의 적절한 예시 제공 및 비유

수업 내내 단순히 하나의 개념을 배울 때에도 그냥 나열식으로 이걸 이렇다. 라고 설명하시는 법이 없었다. 예를 들어 교수매체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교수 매체가 수업에 대해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셨다. 학생들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답을 던졌는데, 교수님께서 개복치라는 생물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냐고 하셨고, 만약 그 생물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면 설명보다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 과정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매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다른 수업과는 달리, 교육공학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학생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적절한 비유 덕에 이해가 더욱 빨리 되었다.

게다가 수업 시간이 3시간으로 긴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중간중간 재미 있는 농담을 던지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또한 수업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교수님은 자세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셨다. 이러한 교수님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보면서 수업 참여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고, 과제에 대한 의욕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과제를 통해 학습을 넘어 '성장'에 도달하다.

2022-2 교육공학,문제기반학습 교수설계

PBL 문제상황제시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을 맡은 우리 팀, 정규 프로그램까지 가보자고~!

< 문제 상황 >

주인공: 나초보 인턴 PD와 4명의 팀원들

상황:

여러분은 ESM 방송국에서 나초보 인턴 PD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젠간 국장은 5명의 인턴 PD를 불러 팀이 되어 사회 교양 프로그램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어진 기간은 5주이며, 최종 제출물은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담은 스토리보드입니다. 만약 국장의 마음에 들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배정 및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기에 꼭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장의 조건은 지난 10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 사회 분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였던 인간/사회/환경/행복/인권 보장/헌법/시장경제/금융의 주제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 시청자 연령대의 분석 결과는 10대로 파악되었기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를 참고하여 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인턴 PD들에게 직속 선배인 왕잘난 PD는 프로그램에 사회 관련하여 시청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논의를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향성을 고민하던 팀원들은 키워드와 연결되는 3개의 단원별로 각 단원당 한 개씩 시놉시스를 작성해보고, 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시나리오와 그에 기반한 스토리보드로 구체화하여 국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세요.

- 인턴 PD들에게 직속 선배는 프로그램에 사회 관련하여 시청자들이 생각해볼수 있는 논의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 조언을 제공

- 키워드와 연결되는 3개의 단원별로 각 단원당 한 개씩 시놉시스를 작성

- 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시나리오와 그에 기반한 스토리보드로 구체화

= 국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작성

- PBL 발표 PPT 작성안의 모습

첫 번째는 배운 내용의 응용을 도운 PBL 기말 과제이다.

수업 중 PBL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PBL이란 문제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의 약자이다. 학습자들에게 실제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제공하고, 교수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만 가끔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마친다. 이러한 PBL기말 과제를 위해 팀원들과 모여 처음에는 PBL 수업의 과목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다음으로는 PBL 수업을 위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설계에 들어갔다. 처음 작성해보는 PBL 수업 설계안에 모두 힘들어했다. 그러나 수업 중 배운 수업 이론이나, 수업 설계안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팀원들과 협력하여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설계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업 지도안 작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성장하였다.

교육공학 수업을 듣고, 매 수업마다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보고,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한 중간고사 대체 과제인 교수학습 과정안 설계도 해 보았다. 교육공학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그러나 교육공학 수업을 듣고 수업 지도안 작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강의식 수업에 익숙했던 나는 PBL수업이라는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해 낯설어했다. 그러나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해보며 기존의 강의식 수업 방식의 장, 단점과 PBL 수업의 장, 단점을 비교해보며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 중 이러한 성장을 '나' 혼자 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점, 교수님이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을 계속 지켜주셨다는 점도 좋았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덕분에 초반에 했던 강의안 발표 보다는 후반부의 학생들의 발표가 훨씬 학습목표를 잘 구현하고, 이해도도 높아진 것이 눈에 보였다. 다른 조의 학생들도 초반

부의 수업보다는 후반부에 훨씬 흥미를 느끼고 익숙해 하는 것이 느껴져서 함께한 학생으로서 부딪힘이 느껴졌다.

기말과제인 PBL수업의 발표때에는 이현우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모두 '꼬마 이현우'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모두 열린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잘 짜여진 수업, 교수-학생간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진 수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교수님이 의도하는 바를 수업시간에 꾸준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협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사실 개인 과제로만 진행하였다면 교수님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피드백이 있었다라든가 모두 달성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업 과정 속에서 팀원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협력하였기에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업 말미의 나는 팀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함께'여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팀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5. 우수한 결과물을 달성하다.

결과적으로 팀원들과 협력하고 과제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덕에 기말 과제 발표 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과정도 즐거웠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 것 같아 부듯한 마음이 들었다.

- 교육과정 및 학습목표의 도출이 우수함.
- 평가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함.
- 학생들의 수행과정 및 예상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 이 학습목표의 전문가가 PD 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시나리오는 흥미로운 반면에 전문성이 떨어짐.

또한, 성적도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3	HABE4231	교육공학	1전선	3	12.00	A
---	----------	------	-----	---	-------	---

마지막으로 이 수업은 단순히 교육학과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교육학과에 관심이 있는 타과 학생들에게도 추천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다. 또 단순 암기식 학습에 지친 학생들에게 학습이 어떻게하면 그 자체로 즐거운지를 느끼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이 수업을 꼭 들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2022학년도 2학기

상명 **익스퍼트** 공모전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 목표 추구 학습전략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안소현

들어가기 전

이전부터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에 꼭 참가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매번 더 좋은 성적으로 참여하려는 욕심에 계속 미루어 왔다. 다행히 이번 학기 4.5라는 성적으로 이전보다 떳떳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쁜 심정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 추구 학습전략은 3년 동안 과정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매 학기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전 5번의 학기 동안 첫 학기와 한 번을 제외하고 3번의 면학 장학금을 받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이 학습전략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서도 여러 면에서 활용되었다. 두 번의 공모전 입상은 물론, 대외활동인 서포터즈 지원 등 나의 모든 중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학습 전략이 도움이 되었다. 상명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 목표 추구 학습 전략'은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장학수혜목록

[7] 수혜학년도/학기 # [선택]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	대가구	장학금	장학금명	장학금명(영문)	차	수혜
1	2022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1	
2	2021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1	
3	2020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1	

분	이수	학	등급
반	구분	점	
2	1전선	3	A+
2	1전선	3	A+
1	1전선	3	A+
2	1전선	3	A+
1	1전선	3	A+
4	교선	2	P
3	1전선	1	P

'배신하지 않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 (1) 배신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2) 3년동안 스스로에게 적용했을 때 결과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6학기를 마치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4점대의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100%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2022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할 예정이었던 나는 기필코 이번 학기는 무조건 4.5를 맞으리라는 다짐을 하였다. 이런 나만의 목표가 혹시나 해이 해질까 봐, 주변 지인과 가족

에게 대놓고 말하고 다녔다. “저 이번에는 무조건 올 A+ 받을 거예요.”라고. 이러한 굳은 다짐 덕인지 성공적으로 꿈을 이루었다. 6학기를 다니며 최종 목표를 이룬 나는 이제는 뭘 해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포기라는 단어는 용서하지 않는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생긴 것 같다. 이처럼 성장할 수 있게 된 현재, 나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며 나의 배신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학습전략 및 전술과 더불어 도움 될 만한 점들을 말하고자 한다.

본론

성공적인 학습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설명하려고 한다.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 목표를 정해라]

나는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 무조건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일에 있어 해이해지기 쉬웠기 때문이다. 학습에 있어 목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명분을 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학습에 있어 책임이 생기고, 나아가 일에 대해 관심과 흥미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성취감이라는 달달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과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데요?”라고 물을 수 있다. 목표를 세우는 나의 노하우를 말해보자면, 목표는 진짜 목표와 더 높은 가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내가 가장 믿고 좋아하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내 삶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자주 이용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행동해서 원래의 목표를 이루게 했다. 다시 말하자면 100명 중 10명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3등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시를 들자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학기 나는 올 A+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 덕분에 이번 학기 나의 올 A+의 목표를 안전하게 달성할 뿐만 아니라 3과목 정도에서 최고점을 받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실패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더 높은 지점을 타겟으로 바라봐야한다.

[모래성 다 쌓아놓고 발로 차지 않기]

위처럼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 무조건 이 학기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정리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틈틈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다가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마의 구간이 존재했었다. 바로 시험기간이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시험기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공부량 압박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 그러면 결과는 남고 감정은 사라진다. 하기 싫은 순간에 어떻게 넘기

느냐 묻는다면, 스스로에게 주문걸기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해온게 아까운데?”, “이것만 잘하면 과탐 관문 1단계 통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부정적인 감정이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에 있어 나쁜 것이라 말하지만, 목표에 있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꼭 생각하면 도움될 것이다. 이때까지 열심히 수업필기한 것들, 공부한 것들이 한 순간의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끊임없이 목표를 상기하고 주문을 걸자. 그리고 성취했을 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꾸준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이루면서 포기하기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다음으로는 나의 학습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학습 과정의 가장 큰 틀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학습과정 3단계]

1. 태블릿로 필기하기
2. 손으로 쓰며 내 지식으로 만들기
3. 태블릿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보면서 뇌에 각인시키기]

평소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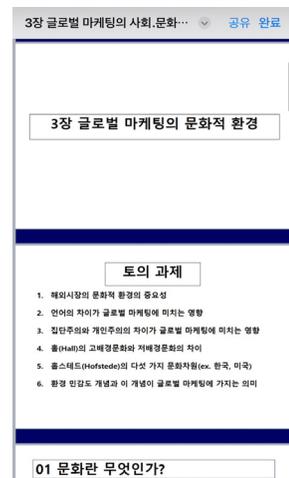
위 3가지의 큰 틀에서 나는 연습, 수업내용 필기, 복습, 재복습의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쳤다.

1. 연습

먼저 연습은 아주 가볍게 했다. 버스 이동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서도 5~10분이라는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코스모스에서 오늘 강의에서 배울 수업자료를 먼저 확인했다. 수업자료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정도만 간략하게 확인했다. 내용을 무조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목차를 보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자료 내용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는 지 확인하였다. 음식이 나오기 전 입맛을 돋우기 위해 먹는 에피타이저처럼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 흥미를 만들었다. 이 방법은 미리 봤던 단어가 수업 시간에 다시 나오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2. 수업내용 필기

대면 수업을 들으러 가서 필기를 할 때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녹음을 했다. 혹시나 수업 필기를 놓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는 녹음앱 중 '클로바노트'를 사용하길 권한다. 클로바노트는 녹음앱은 AI 음성 기록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가 알아서 텍스트로 변환해준다.



[녹음앱 중 클로바노트를 사용한 3가지 이유]

1. 수업내용을 복습하면서 '내용이 잘 이해가 없을 때' 다시 들을 수 있다.

복습하다가 이 내용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수업 별로 정리된 녹음파일에서 그 내용에서 강조된 단어를 검색하여 수업내용 중 그 부분만 다시 들을 수 있다.

2.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적기엔 한계가 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다시 듣고 싶거나, 필기를 놓친다면 북마크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녹음하다가 북마크를 누르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들어 필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사례를 드는 경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처음 듣는 수업 시간엔 어떤 내용에서 이 사례를 드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녹음앱을 통해 또 다시 듣다 보면 그 사례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로 넘어갔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곧 수업의 흐름을 읽게 만들어 준다. 물론 사례내용을 모두 다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파트에서의 사례 설명의 경우엔 다시 듣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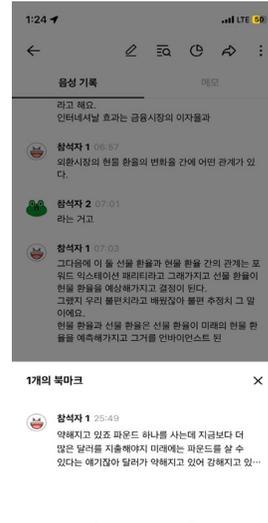
[수업별 녹음본]



[단어 검색 기능]



[북마크 기능]



수업 필기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태블릿 PC를 활용하였고, 수업 때 필기한 내용과 녹음을 보고 들으며 필기한 내용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다.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유는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의 정도나 검증이 가능해진다. 서로 다른 색이 겹치게 표시된 내용은 확실히 내 머리에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물음표를 꼭 표시**해줬다. 인터넷에 바로 검색해서 추가 학습하여 해결하면 옆에 답을 적어둬도 동시에 물음표에 동그라미를 표시했고, 동그라미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즐겨 찾기해서 시간 날 때면 인터넷에서 검색했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엔 교수님께 꼭 질문하여 확인했다. 바로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이론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해보고 찾아보는 그 과정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 원리를 스스로 이해시

키는 탐구과정에서 내 지식으로 정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수님에게 질문하게 되면 그 기억은 아주 오래 남게 된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또 파생 질문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기에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역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수업 별 선택적으로 녹음앱 클로바 노트를 거쳐 2차 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복습 및 재복습은 다음 실전 공부법 과정에서 설명하겠다.

대규모 자본유입의 문제(capital inflow problem)

FDI → good
FPI → ? (중개업자만...)

① 과도한 자본유입은 국내 유동성의 팽창, 실질절상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저축률의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함.

중화외환 불태환 시장개입 (sterilized intervention): 재정긴축, 선별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자본 유입의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워낙 단기간 내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 발생은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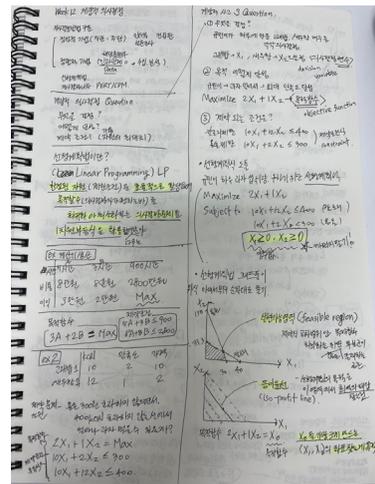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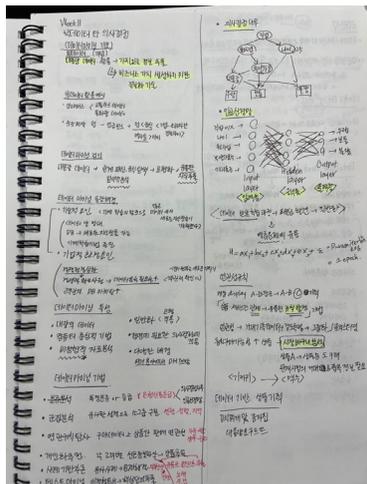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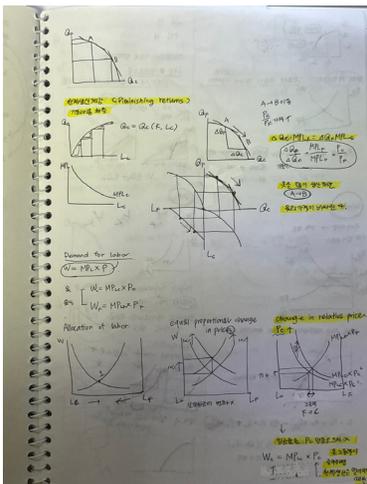
실질절상 (real appreciation)
비 교역재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해 비교역재 가격이 교역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증가 등의 불균형을 가져옴.

② 거액의 증가만큼의 여 의제가 증가해? (유입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③ 유입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유입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시험 기간 실전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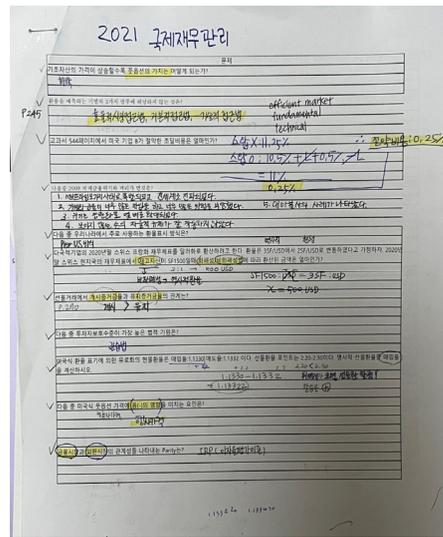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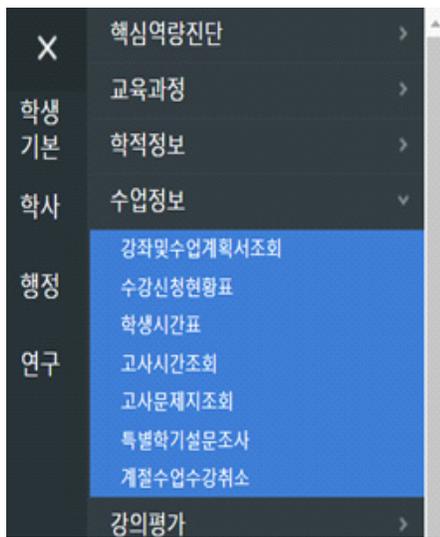
1. 손으로 받아쓰기 학습법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대해서 써보자면 나는 손으로 받아쓰기 학습법을 반드시 활용했다. 복사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받아쓰기 학습법을 시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손으로 쓰는 방법은 머리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넣을 수 있다. 태블릿이나 출력인쇄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글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개념이나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간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래프의 경우 자료로만 보면 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노트를 활용해서 직접 쓰거나 그려보았다. 손으로 받아쓰는 과정은 그 단어가 왜 이 문장에서 쓰이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서술형과 괄호형 단답형의 경우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식을 쓰고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라는 문제에도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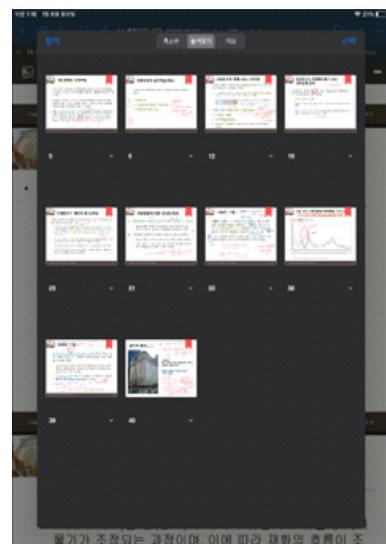
2. 고사문제지에 답안을 정리하는 학습법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고 손으로 써서 내용을 이해했는데 시험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것은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시험방식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수업에서 치르는 시험의 출제방식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 통합정보의 고사 문제지 조화를 꼭 확인하여 최대한 많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연도부터 5년 정도 치의 기출문제가 있다면 답안지를 작성해보자. 자주 출제 되는 문제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있다면 그것은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므로 집중적으로 머리에 넣어야 한다. 남들보다 시험을 먼저 연습해볼 수 있다.



3.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닌 공부

시험공부는 나만의 전술이 중요하다. 나의 학습전략이 대체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전술을 활용해서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소개하자면 바로 시험 시간 전 1시간을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모든 내용이 머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내용을 시험에서 가장 잘 정리된 채로 쓰려면 배운 내용을 앨범처럼 기 기억하고, 내가 쓸 내용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험 직 전 1시간은 내가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수님이 강조한 슬라이드, 암기해야 할 내용이 담긴 슬라이드, 서술형이 나올법한 슬라이드, 중요한 기출문제 답안만을 저장해두고 그 내용 빠르게 훑는다. 나는 태블릿으로 애플에서만 지원되는 Goodnotes라는 앱에서 대체로 필기했기에 Goodnotes의 즐겨찾기를 주로 활용했는데 이 즐겨찾기 되어있는 중요한 내용을 시험 전 30분을 사용하여 읽고, 전체적으로 PPT의 흐름을 아주 빠르게 훑어보는데 30분을 활용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10분씩 계속해서 이



방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확실히 시험에서 바로 기억해둔 내용을 쓰는 데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 수업 질문방 활용하기

이 외에도 같이 수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질문방을 만들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카카오톡 질문방에서 길가면서도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찾기도 했는데 그럼 자투리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개념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잊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몰랐거나 놓쳤던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답변하는 것이 막힌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단체질문방이 있으면 가장 좋은 장점은 수업에서 각자 놓치는 부분을 서로 챙겨줄 수 있다.



기타 시간관리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활용하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시간내서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태블릿을 늘 챙겨가서 수업자료를 눈에 익혔다. 그리고 몇시까지 이걸 무조건 끝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쪼개어 공부했다. 이때 주로 휴대폰으로 스톱워치로 1시간을 맞추어놓고 위기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사자를 불러와 쫓기는 사슴공부법을 했다. 이 챕터는 3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싶으면 30분을 설정해서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하면 느슨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달성하면 큰 목표 역시 달성해낼 수 있게 된다.



맺음말

나만의 이러한 학습전략으로 학교 수업 공부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공부에 대학생에 있어서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한다. 사실 학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많지만, 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나에게 여러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번에도 4 점대 학점 받아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학습에 도움 될 만한 동아리를 가입하기도 했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잘하는 분야를 알게 되는 계기도 생겼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대외활동과 자격증을 하는 등 파생적으로 하면서 스스로를 알게 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 아주 단순한 이 유라도 목표를 꼭 세웠으면 좋겠다. 그 목표에 서 있는 모습의 당신을 계속적으로 상상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늘 상상했었던 당신이 되어 있게 될 것이다.

한 달 안에 GTQ와 토익 모두 부수기!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주연

기획 의도

본인의 능력치 향상 혹은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어학 시험을 보는 상명대 학우들에게 단기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이뤘던 필자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한 경험을 공유하여 스펙을 쌓고 시험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심지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나 교재 몇 권만으로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학우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아래 사진은 주요 장면 편집본이며, 영상의 원본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습도
연습도

GTQ

INTRO GTQ TOEIC OUTRO

연습도
연습도

INTRO GTQ TOEIC OUTRO

연습도
연습도

자격취득 내역서

3일

자격취득 내역서

6일

자격취득 내역서

3일

INTRO GTQ TOEIC OUTRO

연습도
연습도

Speed

INTRO GTQ TOEIC OUTRO

연습도
연습도

연습도 실전처럼~

INTRO GTQ TOEIC OUTRO

연습도
연습도

2022.01.18	2022.01.18	2022.01.18	2022.01.18	2022.01.18	2022.01.18
2022.01.19	2022.01.19	2022.01.19	2022.01.19	2022.01.19	2022.01.19
2022.01.20	2022.01.20	2022.01.20	2022.01.20	2022.01.20	2022.01.20
2022.01.21	2022.01.21	2022.01.21	2022.01.21	2022.01.21	2022.01.21
2022.01.22	2022.01.22	2022.01.22	2022.01.22	2022.01.22	2022.01.22
2022.01.23	2022.01.23	2022.01.23	2022.01.23	2022.01.23	2022.01.23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5	2022.01.25	2022.01.25	2022.01.25	2022.01.25	2022.01.25
2022.01.26	2022.01.26	2022.01.26	2022.01.26	2022.01.26	2022.01.26
2022.01.27	2022.01.27	2022.01.27	2022.01.27	2022.01.27	2022.01.27
2022.01.28	2022.01.28	2022.01.28	2022.01.28	2022.01.28	2022.01.28
2022.01.29	2022.01.29	2022.01.29	2022.01.29	2022.01.29	2022.01.29
2022.01.30	2022.01.30	2022.01.30	2022.01.30	2022.01.30	2022.01.30
2022.01.31	2022.01.31	2022.01.31	2022.01.31	2022.01.31	202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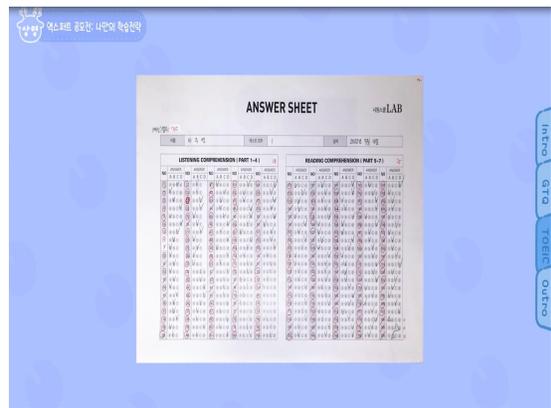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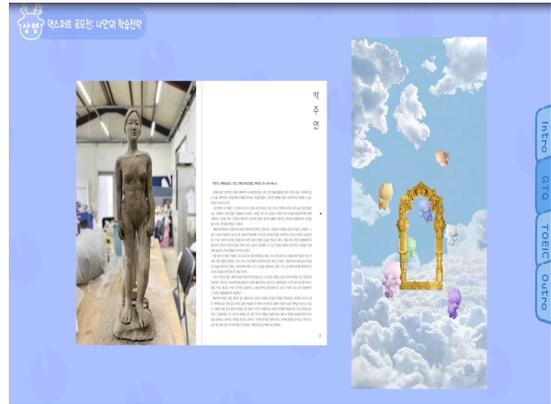
INTRO GTQ TOEIC OUTRO

연습도
연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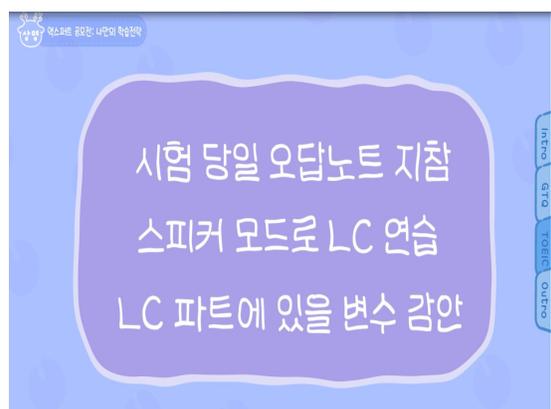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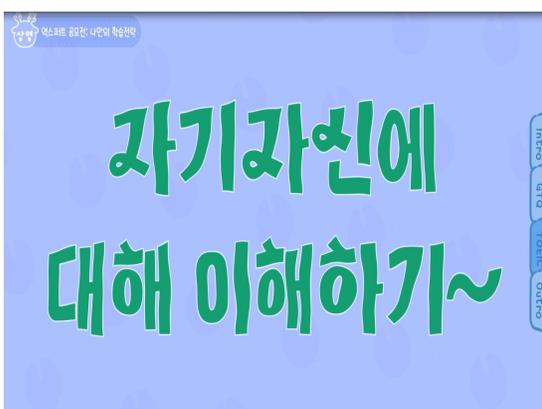
INTRO GTQ TOEIC OU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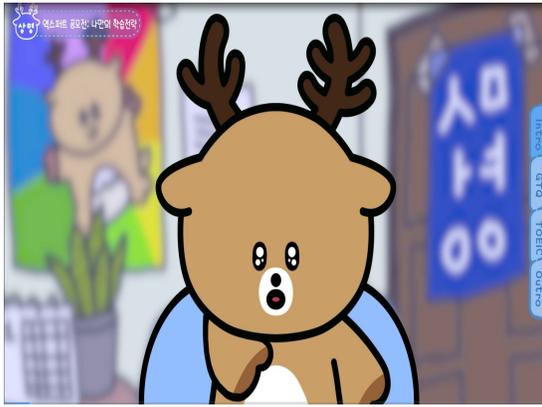
연습도
연습도

INTRO GTQ TOEIC OUTRO



구분	파트	시험형 문항수	시간	배점
Listening Comprehension	1	시연서	6	
	2	말해달라	25	
	3	말한대로	39	100
	4	말씀	30	40분
Reading Comprehension	5	인문공부 위주 (문법+어휘)	30	
	6	장문공부 위주	16	100
	7	특제 인문지문 특수지문	29 25	75분
Total	7 Parts	202문항	120분	99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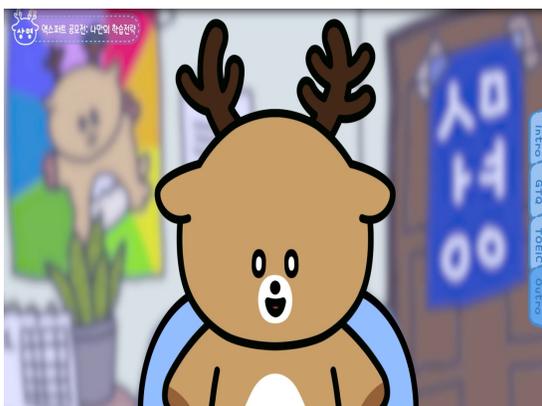




기출문제와
오답노트는
다다익선~

타이머 활용

시험 응시 결과 분석 기능
고사장 소음 모드
데일리 학습 기능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 규칙

국어교육과 19학번 방효주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나는 슬럼프를 겪었다. 내겐 아침 9시 수업보다 정해진 수업 시간이 없는 녹화 강의가 더 힘들었다. 주말에 허겁지겁 몰아서 듣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시험 역시 대면 시험보다 비대면 시험이 내겐 더 까다로웠다. '오픈북'이라는 단어는 나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풀어주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면 시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최선'이었다. 성적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제서야 내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이 정해준 시간, 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능숙했으나 나와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미숙했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찾아온 학업 슬럼프를 극복하고자 세웠던 나의 학습 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표: 학습 부담 최소화

내가 세운 학습 규칙들의 절대적인 목표는 '학습 부담 최소화'이다.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나의 학습 부담은 급격히 늘어났고, 강의 시간과 학습 시간을 스스로 잘 조절해야만 한다는 부담과 압박감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습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들을 세웠다. 물론 현재는 대부분의 수업이 다시 대면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강의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어졌지만, 대면 강의로 돌아오고 나서도 아래의 규칙들을 나의 학습 부담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첫째, 정해진 강의 시간을 지켜서 수업 듣기

첫 단계는 간단하다. 본래 짜인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듣는 것이다. 즉 내 시간표 속 강의 시간에 맞춰 강의를 들으면 된다. 이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대면 전환 이후 이를 지키는 쉽지 않았다. 실시간 강의가 아닌 이상 강의 시간에 맞춰서 듣지 않았고, '이따 저녁에 들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그날에 듣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다. 나는 이러한 '미루는 습관'부터 뜯어고치기로 다짐하고, 내가 짠 시간 표에 맞춰서 강의를 듣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일이 생겨서 강의를 제시간에 듣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당일 강의는 당일에 다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귀찮고 졸리더라도 무작정 e-campus에 접속했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 점차 강의를 미루지 않고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강의를 제시간을 지켜서 듣는 것의 장점은 학습 부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를 제때 듣는 것만으로도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데, 최소한 '밀린 강의 들어야 하는데'라는 스트레스는 없어지게 된다. 강의를 한 번 밀리고 나면 그 뒤로는 수도 없이 쌓이게 된다. 그렇게 밀린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듣다 보면, '수업을 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수업을 해치운다'라는 느낌이 강해지고 이는 강의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강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 부담이 쌓이는 것이다. 다시 대면 수업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e러닝 과목을 들을 때에도, 이처럼 강의를 미루지 않고 수업이 올라오는 당일에 다 들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기

강의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강의를 그냥 틀어만 놓는다거나 교수님께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멍하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집중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습득한 지식의 양과 이해 정도에 따라 복습에 걸리는 시간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부터 집중해서 듣고 강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후에 혼자 복습할 때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복습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무작정 혼자 복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심적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1.김만중(金萬重)(1637-1692 속중18년) : 김장생(金長生)울곡이이의 수제자로 예학에 뛰어나)의 증손. 父는 김의겸(金益謙)(순절)(부의 얼굴도 못 봄), 母는 해평윤씨(海平尹氏)(모에게 굉장히 효도함)(조모 정해옹주). 형은 김만기(金萬基)(속중의 비인 인경왕후의 父).

서인(<-남인)의 중심 인물로 3차의 유배(1차 금성(金城), 2차 선천(宣川), 3차 남해(南海)-남해도의 노도).

*1차 귀향 : 영의정 허적을 비판한 벌

*2차 귀향 : 김만기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의정 선발과정에서 왕의 지시와 압박으로 인해 조사석으로 선발되었고, 이에 장희빈이 속중을 압박해 조사석이 무리하게 임명된 것이 아나니는 비판을 제시했다가 귀향. -> 김만중이 효자라서 얼마 안 있다가 풀려남.

*3차 귀향 : 속중-인현왕후 당시, 후에 '장희빈'이 되는 후궁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없던 속중은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기를 원했음. 광해군-영창대군 사이의 피바람을 겪었던 전적이 있는 신하들은 선뜻 찬성을 하지 못했고, 이때 속중이 남인을 설득해 찬성하도록 하여 책봉에 성공함. 고향에 있던 송시열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며 상소를 올렸는데, 하필 상소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원자 책봉이 끝난 시기였고 속중은 이미 끝난 일로 시비를 건다며 '서인'들을 대거 귀향 및 숙청시킴. 이를 '기사환국'이라 함. 이때 휘말려 김만중도 귀향.

*3차 귀향 시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에 <정경부인윤씨행장>을 짓고, 남해에서 죽음을 맞이함.

*<사씨남정기>의 창작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3차 귀향 때 창작된 것으로 추정.

서포연보의 발견으로 구운몽 창작은 선천 유배시인 1687-8에 이루어졌음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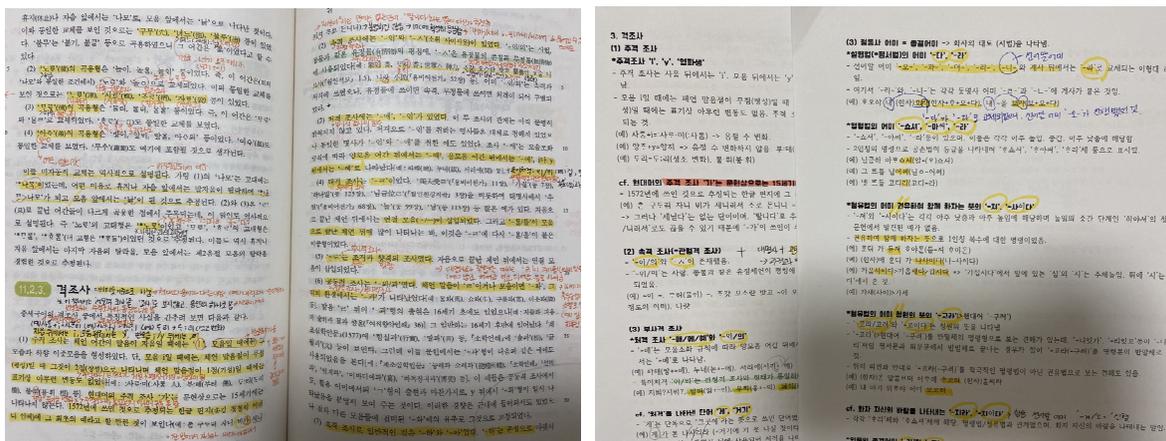
-> 귀향을 간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구운몽>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2차나 3차 귀향 때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서 <서포연보>를 발견했고 그 속에 <구운몽>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선천에서 글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2차 귀향 때로 창작 추정.

〈사진 1〉 강의를 들으며 필기를 정리한 것(검은 글씨는 본래 강의 내용, 파란 글씨는 교수님의 부연 설명을 따로 받아적은 것, 형광 표시는 인상적인 키워드)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말이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교수님이 부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필기한다거나 해당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키워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나 인상적인 키워드를 따로 적어놓으면 후에 혼자 공부할 때도 강의의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학습 자료를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재정리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기

학습의 핵심은 ‘복습’이다. 그리고 복습할 때 흔히들 요약본을 만들어 활용한다.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요약본을 많이들 작성하는데, 나 역시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암기를 위해 요약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요약본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요약본을 만들어야 하는 과목과 필요 없는 과목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내용이 방대하여 내용의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는 요약본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요약본을 작성하면서 방대한 내용을 핵심만 추려 정리할 수 있고,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듯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소화하는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최소한 시험 기간 4주 전부터는 요약본 작성을 시작해야 시험 기간에 요약본 작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 2〉 왼쪽 사진은 요약본을 만들기 전에 전공 책에 작성한 필기, 오른쪽은 그 필기를 정리하여 만든 요약본

4. 점수보고

■ 백분위수

- 백분위란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 집단을 100으로 잡아 등위를 매겨 표시하는 방법
- 집단의 크기나 시험이 달라도 상대적인 위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음
-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누적백분율 분포
- 아래에 속하는 사례를 전체 사례 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 원점수가 60인 학생의 백분위가 40인 경우 이 학생보다 낮은 학생들이 전체 사례 40%라는 의미

4. 점수보고

■ 원점수

- 어떤 검사에서 피험자가 얻은 원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 피험자의 검사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주기는 하나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 기준점이 없어 상대적인 위치를 해석할 수 없음

■ 백점만점점수

- 인위적으로 0점과 100점을 기준점으로 삼는 표시방식.
- 만점을 100점으로 고정해두기 때문에 편리하며 가장 흔하게 사용됨
- 기준점이 없고 검사도구의 난이도에 따른 안정성이 없음

〈사진 3〉 요약정리가 필요 없는 학습 자료의 예시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과목의 요약본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과목에 따라서는 요약본이 필요 없는 강의를 있다. 이미 내용이 정리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의 경우는 요약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 내가 다시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일 수 있기에 차라리 다시 정리할 시간에 주어진 자료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다. 이렇듯 효율적인 학습 시간 분배를 위해서는 정리해야 할 것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넷째, 학습의 핵심은 '복습'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습'이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복습 방법은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다. 나의 집중력, 학습의 질과는 관계없이 그냥 최대한 많이 보면 된다. 물론 집중해서 한 번 읽는 것과 대충 한 번 보는 것은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량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지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충이라도 한 번 보는 것이 좋다. '지금은 집중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집중해서 한 번 보는 게 낫겠지'라며 공부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무작정 억지로라도 한 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집중력이 떨어져도 수많은 단어 중 한 단어라도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한 단어씩이라도 익숙해진다면 이후에 복습할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봤으니까', '그래도 아예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라는 마음은 복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복습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다.

는 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쓰기 교육의 국면에서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학생의 쓰기 과정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박영민 외, 2016: 81). 이처럼 쓰기 과정 및 그 영향 요인이 가시화될 때 교사는 학생의 쓰기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쓰기 과정 모형은 크게 '일반적 쓰기 과정 모형'과 '상황별 쓰기 과정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쓰기 과정 모형은 필자의 쓰기 수준이나 쓰기 장르의 특성과 관계없이, 필자가 글을 쓸 때 보편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간주되는 쓰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인 모형으로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 1981)의 인지적 쓰기 과정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쓰기 이론의 변천에 따라 헤이즈(Hayes, 1996)의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모형, 그리고 최근 헤이즈(2012)의 통제-과정-자원 수준 구분 모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한편, 상황별 쓰기 과정 모형은 필자가 글을 쓰는 상황 요인에 따라 쓰기 과정에 차이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베라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reiter & Scardamalia, 1987)의 지식 나열 모형 및 지식 변형 모형이 대표적이다. 이 두 모형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라 상이한 쓰기 과정을 나타낸 것이지만, '쓰기 과제'에 따라 필자가 선택 가능한 모형으로도 설명된다.

1) 일반적 쓰기 과정 모형

← 단계적 쓰기 모형
인지적 쓰기 과정 모형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모형.

〈사진 4〉 노란색은 1회독, 초록색은 2회독, 검은 글씨는 3회독 때 표시한 것

다섯째,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땐 입으로 내뱉기

너무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소리 내어 글을 읽어보자. 눈으로 대충 넘기는 것보다 입으로 한 음절, 한 음절 읽다 보면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읽는 것이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게 되며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암기의 기본 원리는 ‘이해’

시험을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암기이다. 가장 부담 없이 암기하는 방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다. 주어진 개념이나 사실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내가 수업 중 습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만중은 2차 유배 시기에 <구운몽>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을 외우고자 한다면, 무작정 ‘김만중, 2차 유배, 구운몽’으로 끊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추정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수업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나 장면이 있을 것이다. 나는 ‘김만중’을 떠올리면 ‘효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연상된다. 김만중의 업적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도 ‘아 김만중. 그 효자!’라는 사실은 또렷이 기억이 났다.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정보가 ‘김만중’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다.

김만중은 2차 유배 때 유배지에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구운몽>을 창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즉 ‘김만중은 2차 유배시기에 <구운몽>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사실 속에는 김만중의 효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면 왜 하필 2차 유배시기를 창작시기로 추정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김만중은 2차 유배 시기에 <구운몽>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개념이 쉽게 머리에서 휘발되지 않는다. 암기는 이렇듯 최대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쉽게 휘발되지 않도록 이해하며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과: 달라진 성적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

위와 같은 학습 방법들로 학습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 나는 학업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학교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나의 학습 능력 자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학업에 있어서 슬럼프를 겪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온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슬럼프를 극복해냈으면 한다.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학습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하며, 타인의 학습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소개한 학습 방법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2022	2학기	11	14	49.50	4.50
2022	1학기	18	19	81.00	4.50
2021	2학기	19	19	82.00	4.31
2020	2학기	21	22	82.50	3.92
2020	1학기	21	21	91.50	4.35
2019	2학기	18	19	73.00	4.05
2019	1학기	17	18	74.00	4.35

2022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16	학과수석	Top in Department
2022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사진 5〉 비대면 이후 성적이 떨어진 모습과 학습법을 찾고 나서 향상된 모습

2022 상생플러스 평가회에서 생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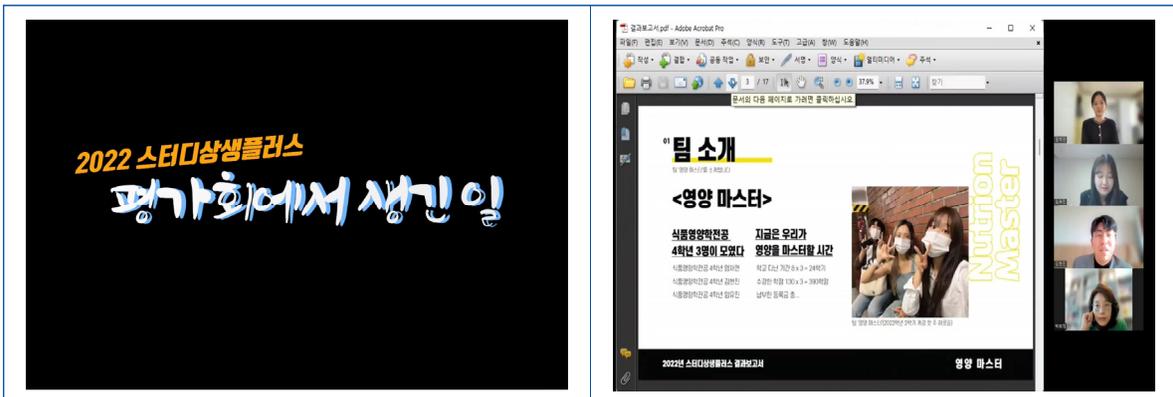
식품영양학전공 17학번 김현진

기획 의도

2022년 스테디상생플러스는 제게 ‘갓생활기’ 도전과제 중 하나였습니다(‘갓생활기’란 소소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보람찬 인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신(갓,GOD)’과 ‘인생’을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저에게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을 선사한 스테디상생플러스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지금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스테디상생플러스를 마무리하며 교수님과 함께 가졌던 평가회는 저의 경험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떠나 감동과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작품의 인트로는 평가회 중 교수님과 다른 팀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시간 순서대로 평가회의 장면들을 편집하여 담아내었습니다. 모든 평가회의 영상이 끝나면 영상 말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자 다짐을 띄우며 영상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이런 좋은 교내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더불어 하는 학습 문화를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아래 사진은 주요 장면 편집본이며, 영상의 원본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터디: 2022 새플러스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식품영양학전공 | 임재민 | 김연진 | 임유진 **영양 마스터**

00 INDEX

- 01 **팀 소개**
팀 명칭, 마스터 팀 소개합니다
- 02 **활동 목표**
우리가 스터디상생플러스를 하는 것은
- 03 **활동 내용**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04 **달성 성과**
우리가 이룬 것은
- 05 **결과 및 고찰**
받은 것, 느낀 점, 개선사항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영양 마스터

01 팀 소개

팀 명칭: 마스터 팀 소개합니다

<영양 마스터>

식품영양학전공 4학년 3명이 모였다 **지금은 우리가 영양을 마스터할 시간**

식품영양학전공 4학년 김연진 | 학교 다닌 기간 6 x 3 = 24학기
식품영양학전공 4학년 임유진 | 수강한 학점 130 x 3 = 390학점
식품영양학전공 4학년 임재민 | 남부님 등록금 중...



Nutrition Master

팀 명칭 마스터(2022학년도 2학기 제1회 중간 평가 이후 이후)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영양 마스터

02 활동 목표

우리가 스터디상생플러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필요없이 오로지 영양사 위생사 합격

Final Destination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영양 마스터

03 활동 내용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 **교학상장**
본래의 / 오로지 한 가지에
준비하는 사람은 달라도
합격 공부한다

사범의 신념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알려준다

수요일 11:00-13:00 **풀이 하나보다 나으니**
이 시간만큼은 공부한다 **사범** 해유자가 알려준다



<활동 원칙>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영양 마스터

고등교육기 백년백승 no. 003

준비하는 시험

시험 이름	영양사	위생사
시험 일시	2022.12.17(화)	2022.11.19(화)
준비 연한	김연진, 임유진	임재민
합격기준	합격자 공정한 선 공개 총점의 40%이상만 달성, 총 과목 인원이 40명이면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합격자 공정한 선 공개 총점의 40%이상만 달성, 총 과목 인원이 40명이면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합격자 시험 성적은 40%이상만 달성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시험 과목 (문형수)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40)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영양관리(40)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조리, 위생 및 관능검사(40)
		<3교시> 1. 위생학(40) 2. 환경미생물학(40) 3. 위생공학(40) 4. 위생관리학(40) 5. 식품위생학(40)
		<합격> 1. 영어(40점)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영양 마스터

스터디상생플러스 첫번째 시간

자세히 설명하면 모든 시험의 일정행위 관련하여 사용에게 영양을 마치거나 마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위생안전행위 관련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4개중의 위생안전수행에 필요한 전공지식과 기법들 가진 사용으로서 보건관리부서의 면제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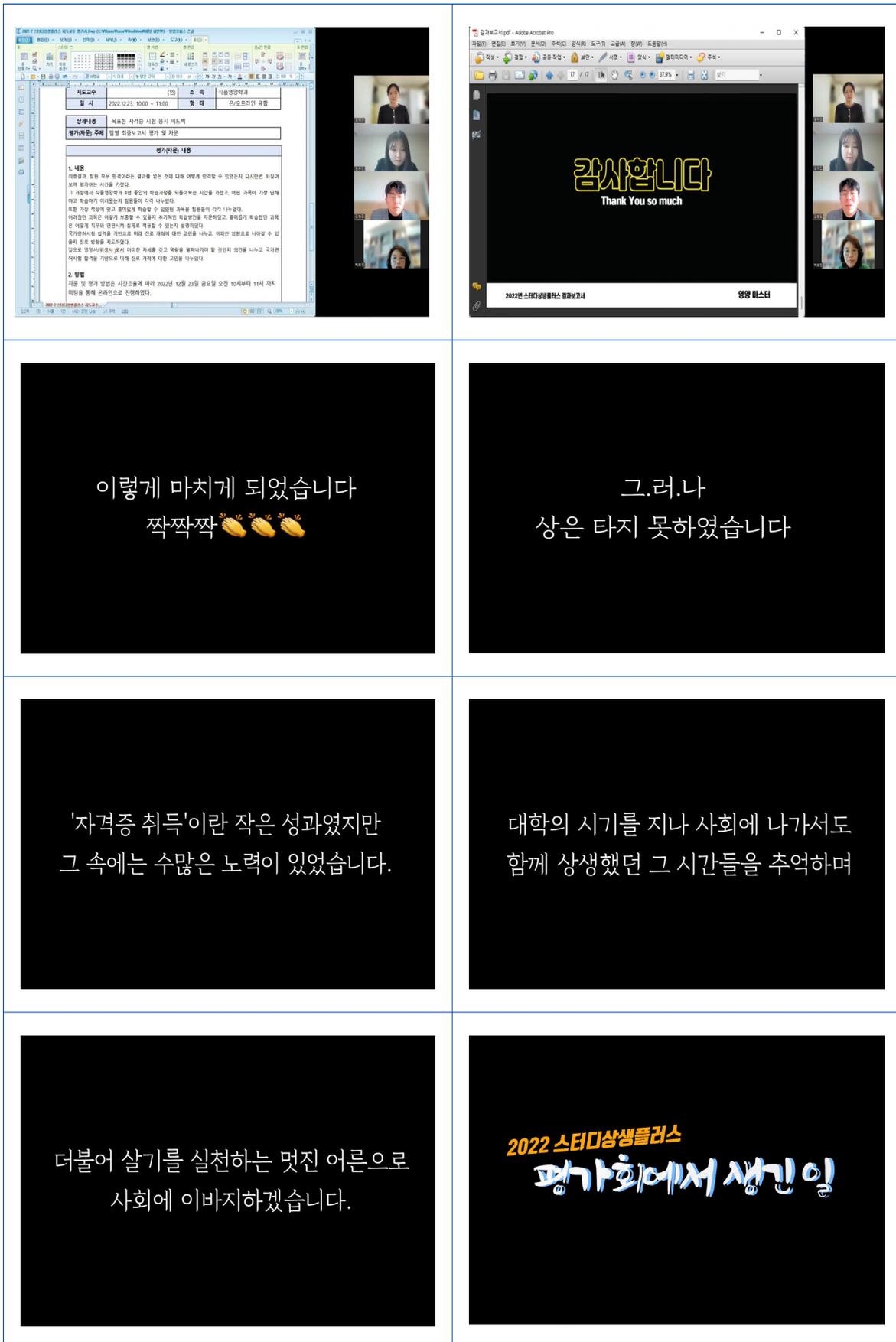


스터디상생플러스 첫번째 시간

개인 및 단체에 공용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제작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조리관련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 관련인 국가면허시험을 대비하는 스터디(음식을 제작합니다)

2022년 스터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

영양 마스터



K-MOOC와 작지만 큰 소모임 활동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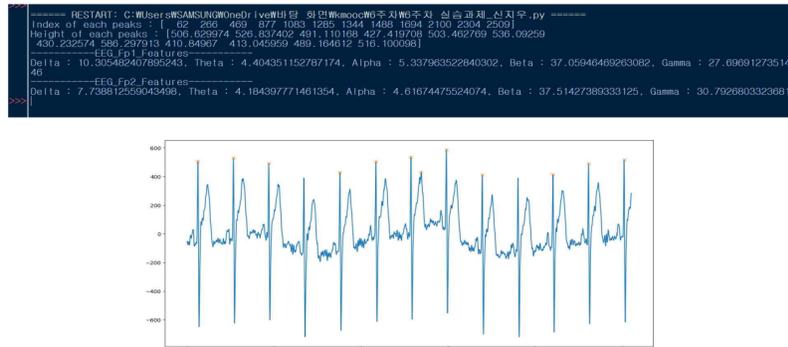
제가 참여한 활동은 2022년 교내 'K-MOOC' 강좌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소모임'이었습니다. K-MOOC라는 것을 몰랐던 저는 소모임 모집 신청 전 K-MOOC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K-MOOC는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무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교내 K-MOOC 강좌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소모임 활동은 K-MOOC를 통하여 원하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팀원들과 함께 수강하며, 강좌를 모니터링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과 토의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2명의 팀원들과 이정년 교수님의 감성인공지능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전공강의와 교양강의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던 인공지능에 대해 실습위주로 학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기에는 1학년의 수업시간과 배움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학교 강의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직접 실습해보지 못하여 내용이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소모임을 잘 활용한다면 전공 관련 내용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실습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수강한 감성인공지능 강좌는 총 8주차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주차마다 지도학습의 개념과 비지도 학습의 개념, 감성인식 알고리즘을 위한 실험 설계, 통계 분석을 통한 유효 변수의 도출, 오픈소스 기반의 감성인식 시스템, 뇌와 심장 기반의 감성인식 시스템 등에 대한 이론 내용을 학습한 후 관련된 내용의 실습 강의를 보면서 이론 내용과 실습 내용을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고 과제 코드와 함께 실습 결과물을 <그림 1과> 같이 제출하며 한 주차의 수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K-MOOC 감성인공지능 6주차 과제 결과물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02210787 신지우



〈그림 1〉 6주차 과제 결과물 제출

제가 속한 팀은 감성인공지능 강좌를 수강하며 전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좌를 모니터링하는 활동과 강의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소모임 보고서를 작성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과 토의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좌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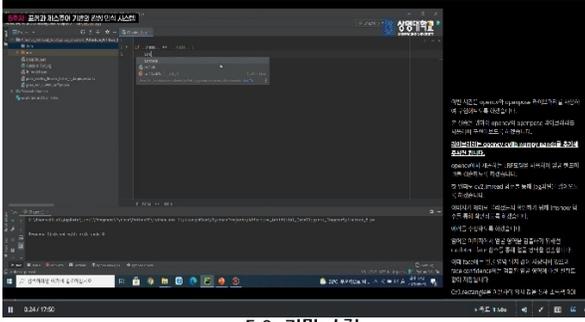
강좌 모니터링은 품질 향상을 위한 소모임의 기본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은 각 1인 주 3회 1시간씩 활동하여 매주 총 3시간 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이었으며 주로 강의 동영상의 자막 오류를 찾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중에 자막의 오류를 찾아낸다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자신이 모니터링을 한 시간과 함께 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상명대학교 K-MOOC 강좌 모니터링 근무 상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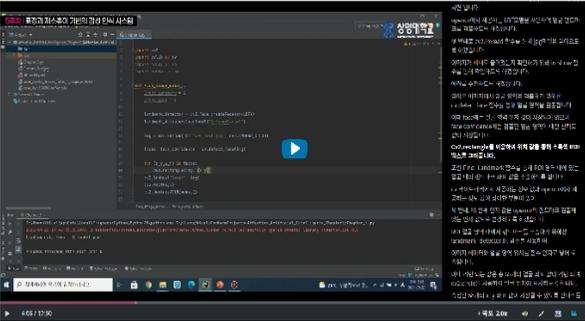
근무상황표			확인	담당교수
				(자필서명 및 도장)
강좌명	감성 인공지능			
팀명	자르바다	차수	3	
주요활동				
연번	성명	모니터링 실시일	모니터링 시간 (시작~종료)	모니터링 내용
1	신지우	2022.11.28.	19:57-22:05	3,4차시 자막 모니터링
2	신지우	2022.12.02.	21:52-22:42	5차시 자막 모니터링
3	신지우	2022.12.05.	22:35-23:35	6차시 자막 모니터링

〈그림 2〉 3차시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강좌 모니터링 상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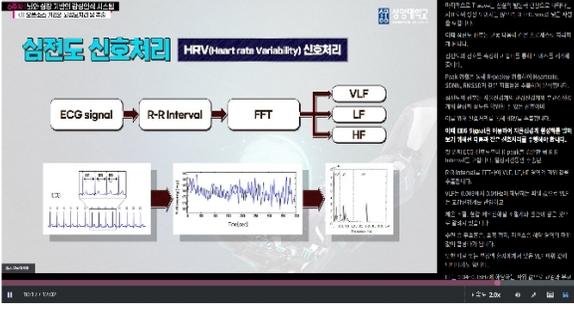
2022년 상명대학교 K-MOOC 강좌 모니터링 근무 상황표 증빙자료



5-2. 자막 수정
00:25 pandas를 추가해 -> pandas를 추가해



5-2. 자막 수정
04:06 cv2.rectangle을 이용하여 -> cv2.rectangle을 이용하여



6-1. 자막 수정
10:17 EEG Signal을 -> ECG Signal을

〈그림 3〉 3차시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강좌 모니터링 점검 보고서

강의 내용에 대한 토의

저희 팀은 매주 온라인으로 강좌를 수강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비대면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작은 모임에서는 각자 강좌를 수강하며 생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의문이 든 내용을 질문하고 서로 답하며 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해당 강좌에 관련된 한층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감성인식에 관련된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상명대학교 K-MOOC 강좌 소모임 활동 보고서

소모임 활동 보고서		확인	담당교수
			(자필서명 및 도장)
강좌명	감성 인공지능		
팀명	자르바다	차수	3
<p>활동 내용 서술 및 증명내용 캡처 등</p>  <p>- Zoom 비대면 소모임 진행 사진 -</p> <p>5,6주차의 오픈소스 기반의 표정과 뇌 정보처리 및 추출에 대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서로 각자 강의에서 어려웠던 내용을 조사하고 함께 공유하며 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아는 지식을 답하며 공부하니 더욱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다.</p>  <p>오픈소스 기반의 얼굴정보 처리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내용의 논문을 찾아 읽고 요약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p> <p>논문 출처 박종민, 김경원, 정종진, 박성주. (2020). 차세대 보안을 위한 비전 기반 얼굴 정보 처리 기술.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7(8), 10-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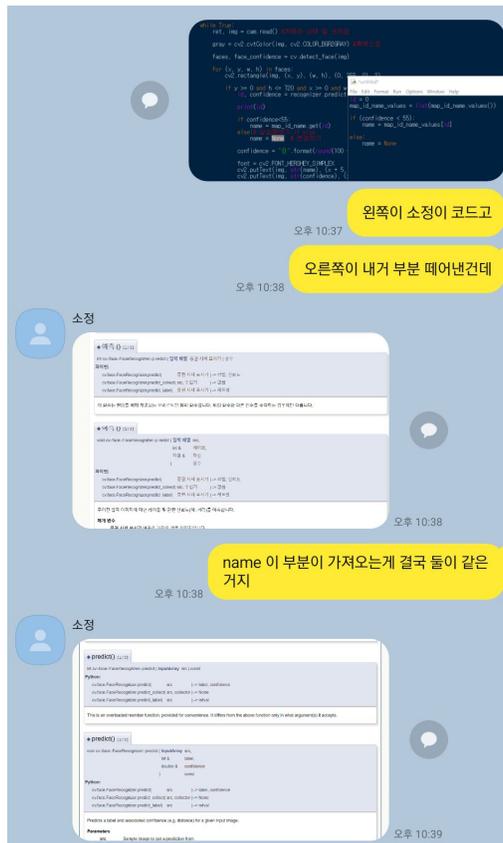
위와 같이 근무 상황표 (증빙자료 포함)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그림 4〉 3차시 소모임 활동 보고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보통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며 생기는 오류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생긴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같이 하나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니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양질의 참고자료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오류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주차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는 서로의 과제 파일을 공유하여 〈그림 5〉와 같이 자신의 코드와 비교해보며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인의 코드를 읽어보고 출력 결과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코드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다른 코드들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주차의 과제와 코드 구성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코딩은 구글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하며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과제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지만 해결하려는 과제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의욕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소모임의



〈그림 5〉 서로의 코드를 비교하기, 자료를 공유하기

팀원들은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학습 의욕이 사라졌을 때 팀원들과 함께하여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활동을 한 후에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은 강의 내용과 과제 해결, 관련 토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학습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였으며 학습 내용을 기억에 더욱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 교내 ‘K-MOOC’ 강좌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소모임’에 참여하여 학습에 도움이 된 점에 함께 학습하는 법을 배운 점입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과제를 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비대면 학습방법이 권고되면서 개인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습의 난도나 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 혼자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활동이나 학습이 어색하고 불편했던 저는 이 활동을 지원하기 전부터 ‘소모임’과 ‘토론’이라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말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학습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소모임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온 이 활동을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우분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학우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